

코스피	코스닥
2593.82	753.22
(-15.48)	(-11.84)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908	1369.30
(+0.011)	(+0.70)

암·치매·아토피 등 사람 치료제, 반려동물도 먹는다

반려동물을 위한 바이오

<上>판 커지는 동물의약품

반려동물 사망 원인 1위 '암' 면역항암제·당뇨병 치료제까지 제약·바이오사 신약 개발 가속 동물 적용으로 약효검증 효과도

'펫코노미'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에서부터 치료약, 수술 등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산업이 단순 사료와 간식을 넘어 치료제와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 펫 보험, 정보통신기술(ICT)까지 무한대로 확장되는 추세다. 나의 형제이자 자식인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반려인들은 이제 아낌없이 지갑을 열어 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찾아가고 있다.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을 3회에 걸쳐 조망해 본다. /편집자 주

사람을 위한 치료제가 반려동물을 위한 치료제로 재탄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일 만큼, 반려견과 반려묘는 나이가 들수록 치매, 암, 당뇨와 같은 사람의 난치병을 그대로 앓는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을 반려동물에 적용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약효와 안전성 검증 효과도 있

어 일석이조 전략으로 꼽힌다.

◆사람 치료제, 반려동물이 먹는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동물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해 '항암' '인지기능장애 증후군'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 나선 상태다.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전문 회사 박셀바이오는 지난 8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첫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박셀바이오는 현재 반려묘용 면역항암제도 개발하고 있다.

HLB생명과학은 인체용 신약 핵심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을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로 개발하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HK이노엔은 동물용 아토피피부염 치료 신약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HK이노엔은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피부에 바르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IN-115314'의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용 치료제는 같은 후보물질을 사용해 경구용으로 개발된다.

지엔티파마 역시 현재 시판 중인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를 반려견 뇌전증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는 임상을 진행 중이다. 제다큐어의 주성분은 '크리스테살라진'으로, 지엔티파마는 현재 같은 물질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투여하는 인체 임상 2상을 진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 찾은 JY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시에 위치한 삼성전기 필리핀법인(SEMPHIL)을 찾아 MLCC 제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행하고 있다. 반려견이 제다큐어를 4주 이상 복용하면 인지기능과 사회활동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전국 1870여개 동물병원에서 판매되고 있다. 대응제약은 국산 36호 당뇨병 신

약 '엔블로'를 반려동물 당뇨병 경구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의 간판 제품들이 동물용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반려동물 위한 헬스케어

<메트로경제>가 10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 가량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란 질문을 새로 추가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을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식품에서부터 치료제,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치약, 샴푸와 같은 세정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치료제가 동물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의 기술동향을 점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가구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기조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 강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기 애니멀프리이니셔티브 대표 임윤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 SE' 살펴보니

'4.9mm' 역대급 얇은 폴더블폰... AI 기능도 강화

2억 화소 카메라·хин지주름 개선 쿼터AP스냅드래곤8 3세대 탑재

삼성전자가 역대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폴드 스페셜 에디션(SE)'을 공개하고 스마트폰 시장 1위 탈환에 나선다. 최근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다급형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될 기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새로운 갤럭시Z 폴드 SE 제품은 21일 삼성닷컴을 통해 공개하고 25일 출시



지난 17일 삼성전자가 공개한 '새로운 갤럭시가 공개됩니다' 티징 영상 캡처 화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자사 뉴스룸에 '10월 21일, 새로운 갤럭시가 공개됩니다'는 제목으로 갤럭시Z폴드SE 출시 예고 영상을 올렸다.

12초 분량의 영상에선 초록색 문틈 아래로 편지봉투를 밀어넣는 장면이 나온다. 봉투를 열면 '갤럭시 Z폴드'와 같은 패블릿형(폰+태블릿) 스마트폰에 'You're invited (당신은 초대받았다)'는 문구와 함께 '2024년 10월21일'이란 날짜가 적혀 있다. 예고 영상에서는 문틈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신제품이 얇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갤럭시 Z폴드 SE는 삼성전자의 역대 폴더블폰 가운데 가장 얇으며 기존 갤럭시 Z폴드6보다 더 가볍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폰 출시 시기는 이례적으로 빠

르다. 기존 제품인 갤럭시Z폴드6를 내놓은 지 불과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간 삼성전자는 하반기 초 갤럭시Z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듬해 초 신형 갤럭시S 시리즈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하반기 내 기존 제품에 이어 플래그십 제품까지 연이어 공개한 셈이다.

이는 최근 무섭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 업체들은 얇은 두께는 물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을 장악하고 나섰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명태균, 25일 행안위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 /사진 뉴시스
- ▲ 북한, 새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 출범에 엄포

- ▲ 민주 "금투세 입장 국정감사 끝난 후 논의할 듯"
- ▲ '소방관 한 끼 3000원대' 논란에 소방청 급식환경 개선



- ▲ 유승민 "윤·한, 보수 몰락 책임... 특검 결단해야"
- ▲ 해병대, 필리핀서 '2024 카만닥 훈련' 참여 /뉴시스

동양·ABL 빈자리 ‘눈독’… 라이나·메트라이프, 시장확보 올인

외국계 생보사 지각변동

우리금융서 동양·ABL생명 인수

라이나 상반기 순익 2627억 40%↑ 성과에 조지는 대표이사 연임 성공

메트라이프 1분기 지급여력 356% “5년내 생보업계 톱5 진입할 것”



동양생명, ABL생명 사옥.



/각사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면서 외국계 보험사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순이익을 합쳐 2000억원이 넘는 두 보험사를 우리금융이 사들이면 외국계 보험사 순위 자리 주인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약 1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중국다자보

험그룹 산하의 계열사다. 두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각각 1684억원, 406억원을 기록했다. 합쳐서 2000억원이 넘는 규모로 국내 보험사 가운데 NH농협생명(1639억원)보다 많은 순익 규모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우리금융으로의 피인수합병을 앞두고면서 두 보험사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타 외국계 생명

보험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두 보험사를 제외하고 국내 보험시장에 남은 외국계 생보사는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BN파리비카디프생명 등이 있다.

그중 라이나생명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으로 2627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한 수치다. 라이나생명의 순익은 2021년 2331억원, 2022년 3631

억원, 2023년 4640억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조지는 라이나생명 대표이사는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라이나생명 CEO로 선임된 후 지난 2년간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나생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조지는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래 꾸준히 순이익을 증가시켜 생명보험업계 상위권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및 업계 최상위의 총자산이익률(ROA)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상위 외국계 보험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349억원, 2021년 1694억원, 2022년 360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업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356.3%로 생보업계 1위를 기록

한 데 이어 상반기에는 더 개선된 358.9%로 집계됐다. 생보사 중에 300%를 넘긴 곳은 NH농협생명(373.4%), 메트라이프생명(358.9%), 라이나생명(342.9%) 등이다.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7월 연임을 확정했다. 송 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1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7월 1일 임시 주주총회에선 3연임이 확정돼 오는 2027년까지 메트라이프생명을 이끈다.

앞서 송 사장은 지난 6월 5년 내에 생명보험업계 톱(TOP)5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송 사장은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미 재무건전성 등로는 업계 최고 수준이며 많은 부분에서 TOP5 수준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며 “하지만 5년 후에는 대부분의 중요 지표들이 모두 TOP5 안에 들고 대중들이 한국 대표 5대 생보사로 메트라이프생명을 꼽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휘발유 값 오르나... 유류세 인하폭 축소 조짐

정부, 유류세 정상화 의지 내비쳐 기재부, 이번주 중 연장여부 발표

중동 지역 분쟁과는 별도로 국내 휘발유 값이 뚝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추가로 연장한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민생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기재부가 인하 조치를 당장 종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기름에 붙는 세금 할인 폭만 축소해도 휘발유 가격은 바로

오르게 된다. 현재 인하율(7~10월 적용)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지난 1~6월 상반기(휘발유 25%, 경유 37%)에 비해 이미 일부 축소된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국내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가까이 시행·연장돼 왔다.

이번 주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되, 할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기재부가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20일 오후 3시 기준 리터(ℓ)당 1592.05원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휘발유값은 이달 초에 비해 ℓ당 10원 가까이 올랐다. 인하 폭이 종전 20%에서 15%로 축소될 시 1600원 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할인율을 만약 5%포인트(p) 내리면 가격은 ℓ당 40원가량 상승한다. 또 10%p 조정 시 16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반려동물 치료제 개발 빠르고 비용은 낮아

>> 1면 ‘암·치매·아토피 등...’서 계속

대웅제약의 계열사인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기업 대웅팻은 대웅제약의 ‘우루사’를 개량해 반려동물 간기능 개선제 ‘유디씨에이정(UDCA정)’을 선보였다. 대웅제약은 스테디셀러인 ‘베아제’와 ‘임팩타민’을 활용, 동물용 소화효소제 ‘베아제팻’과 반려동물용 영양제인 ‘임팩타민팻’도 출시한 바 있다.

동국제약은 대표제품 ‘인사돌플러스’의 주성분을 활용, 국내 첫 반려견 전용 치주질환 치료제 ‘캐니돌 정’을 판매하고 있다.

◆동물 신약 개발의 일석이조 효과 기업들이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에 앞

다뒀던 터인데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시장성 때문이다.

반려동물 치료제의 개발 기간이 사람 치료제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낮다는 것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거치는 반려동물용 신약은 개발 과정이 인체용 의약품보다 훨씬 단순하고 쉬운 편인 반면, 공적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캐시카우가 되기 때문에 인체용 의약품 개발 비용을 벌 수 있고, 동물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일석이조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www.goyangcouncil.go.kr



차세대 AI 태블릿 PC 경쟁 '활활'

갤럭시 탭 S10 vs 아이패드 미니

<삼성>

삼성 '갤럭시 AI' 대화면 최적화 S펜 기본 제공... IP68 방수·방진

애플 3년만에 미니 신제품 출시 A17 프로 탑재... 인텔리전스 지원

삼성전자와 애플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태블릿 PC 제품으로 또 한번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AI 스마트폰에 이어 AI 태블릿 PC를 연이어 내놓으며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선 것. 삼성전자는 이달 갤럭시 탭 S10 시리즈를 선보인 한편 애플은 가장 작은 '아이패드 미니' 신작을 3년 만에 선보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 '갤럭시 AI' 기능을 갖춘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0+'를 국내 출시했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0+의 화면 크기는 각각 369.9mm(14.6형), 315.0mm(12.4형)이며, 두 모델 모두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색상은 문스톤 그레이와 플래티넘 실버 등 2가지다.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와이파이 지원 모델과 5G 지원 모델로 각각 출시된다. 또한 디스플레이에는 반사광을 줄여주는 반사방지(AR) 코팅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빛이 밝은 곳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몰입감 있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의 성능을 살펴보면 전작 대비 CPU(중앙처리장치)는 약 18%, GPU(그래픽처리장치)는 약 28%, NPU(신경망처리장치)는 약 14% 향상됐다.

특히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태블릿의 대화면에 최적화된 '갤럭시 AI' 기능을 제공한다. 또 AI 기반의 '대화 선명하게 듣기' 기능도 적용됐다. 시청 중인 영상 속 발화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키우고 일부 배경 소리는 줄여줘

<애플>

아울러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실제 펜으로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S펜'이 기본 제공된다. IP68 방수·방진 기능을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은 '아이패드 미니' 신작을 3년 만에 선보였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 신작은 전작과 같이 휴대성을 유지하면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한다. 가장 작고 가볍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애플은 아이패드 미니(7세대)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미국 등에서는 사전 구매가 시작된 한편, 한국 시장에서의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이패드 미니 신작이 등장한 것은 2021년 6세대 이후 처음이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 신작은 21cm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초경량 휴대용 디자인을 유지했다.

두뇌 역할을 맡을 칩으로는 'A17 프로'를 탑재해 휴대성을 유지하면서 성능 및 전력 효율성을 더 끌어올렸다. A17 프로는 전작의 A15 바이오닉 대비 뉴럴 엔진 처리 속도가 2배 가량 빨라졌다.

또한 아이패드 미니 신작은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 가능하다. 아이패드 OS 18를 기반으로 AI가 언어와 이미지를 이해 및 생성하고, 앱을 넘나들며 필요한 동작을 수행해준다. 아이폰과 같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기기 내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 온디바이스 방식과 애플 실리콘 서버 연동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린 스케치를 AI가 깔끔한 이미지로 바꿔주는 '이미지 마술 붓', 사용자 맞춤형 지능을 제공하는 시리 성능 개선, 아이패드와 챗GPT의 통합 등이 향후 추가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갤럭시 탭 S10 울트라. /삼성전자



애플은 아이패드 미니(7세대) 이미지. /애플

영상 속 음성을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 노트 앱의 '노트 어시스트' 기능은 대화면에 최적화된 다채로운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한다. 노트 어시스트를 이용하면 음성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바로 변환하고 번역·요약할 수 있다. 'PDF 오버레이 번역' 기능은 별도 번역기에 텍스트를 복사해 붙여넣지 않아도 외국어 문서를 쉽게 번역해준다.

'서클 투 서치'도 태블릿 화면에 보다 최적화됐다. 넓은 화면을 이용해 이미지와 영상을 검색하고, 동시에 텍스트도 번역하는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더욱 생산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대화면에 최적화된 '3D 맵 뷰' 기능은 넓은 태블릿 화면에서 3D 맵 뷰 기능으로 한눈에 집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의 온도, 습도, 공기 질, 에너지 사용량 등 연결된 삼성 기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배추가격 안정화 팔 걷어

주중 김장재료 수급 대책 발표 송미령 장관, 재배농가 현장 점검

정부가 이번 주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의 한 배추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상황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20일 "국민들의 김장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의 한 배추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품질이 좋은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도매가격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돼, 국민들께서도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상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김장배추는 현재 생육기를 지나 배추의 속이 차는 결구(結球)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상과 생육관리에 따라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배추 매대에 배추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뉴시스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하순에 주로 출하되는 전남, 충남, 전북 지역 작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된 '2024년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는 중국산 신선 배추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더라도 구매할 의향은 '없다'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소비자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4일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무응답·기타 등을 감안해도 이들 중 최소 500명가량은 사지 않겠다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UFG 신기술 적용... 커버화면 6.4인치 예상

(울트라 폴더블 글래스)

>> 1면 '삼성 갤럭시 Z폴드 SE'서 계속

이에 삼성전자는 AI를 더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고급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다.

구체적으로 갤럭시 Z폴드 SE에 탑재되는 새로운 기능은 ▲4.9mm 얇은 두께 (펼쳤을 때) ▲힌지 주름 개선 ▲2억 화소 메인 렌즈의 트리플 카메라 ▲AP(앱 프로세서) 스냅드래곤8 3세대 탑재 등이 있다.

무엇보다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힌지 주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SE에는 기존 폴더블폰에 사용한 UTG(울트라 썬 글래스) 대신 삼성전자의 새로운 울트라 폴더블 글

래스(UFG) 기술이 적용돼 주름을 전작 대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카메라 성능도 향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은 수직 배열의 트리플 렌즈가 장착됐는데, 기존 폴드6와 달리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카메라림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원활한 AI 기능도 도입한다. 스마트폰의 두뇌인 AP(앱 프로세서) 경우 퀄컴의 스냅드래곤8 3세대 칩 장착이 유력하다. 내장 메모리는 256GB, 512GB, 1TB 버전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커버 화면 6.4인치·메인 화면 8인치로 예상되며, 배터리 용량도 폴드6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일단 들어와!

모든 식품정보

푸드e음

푸드e음에 다 있다!

원재료

연구 장비

생산 장비

전문가

교육

데이터

www.foodpolis.kr/fbip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63) 720-0500

비트코인 6만8000달러 돌파... 美 대선·ETF 덕분에 활황세

가상자산 시장 반등 기회

비트코인 열흘 사이 15% 상승
트럼프 후보 당선 확률 높아져
中 부양책 실망... 가상자산 유입

이달 초 침체됐던 가상자산시장이 지난 주를 기점으로 활황세로 전환하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대선(11월5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대규모 유입, 중국 경기부양책 등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83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6만8000달러까지 오른 것은 지난 7월 29일(6만2660달러)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 중동 전쟁 위기

비트코인 가격 추이



감과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5만940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회복하기 시작해 열흘 사이 14.9%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상승세도 매섭다.

알트코인 대장주로 불리는 이더리

움은 이달 최저점(지난 4일) 대비 13.8% 상승하면서 264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월드코인은 56%, 도지코인 39.8%, 수이 24.8%, 솔라나 14.9%, 체인링크 9.3%, 리플 9.3% 등 인기 가상자산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근 가상자산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카켓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은 54.8%로, 해리스 후보(44.8%)에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한때 해리스 후보에게 밀리기도 했는데,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친(親) 가상자산 행보

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은 '트럼프 자산'으로도 분류된다.

가상자산 공약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금지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장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출시 금지 등이 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상승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 대선이 막판까지 접전이 예상돼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움직임도 달라질 전망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 증가도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하루에 8000비트코인이 매수되면서 지난 7월21일 이후 최대 일일 매수량을 기록했는데 기관의 관심과 투자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 옵션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ETF 옵션은 미래에 비트코인 ETF를 특정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가상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 퇴치를 위한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이 쏟아지자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 가상자산시장으로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투자대안으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이 한주 내내 지속 상승하면서 9월 말과 10월 초에 있었던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조정을 만회했다"며 "시장의 방향성을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것은 예전과 같지만, 미국 ETF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기관들이 주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투자라는 말을 붙이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열심일 때도
투자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깊이 좋아하는 것만큼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 없으니까요

당신의 삶도
당신의 자산도 성장하는 투자

N2, 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2024년 소비자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부문 3년 연속 1위

N2,

케이뱅크, IPO 상장 또 연기 업비트 리스크 해결이 관건

금융위 공모계획 철회 증권신고서 제출
앞서 2023년 2월 이후 두번째 철회
부진한 수요 예측에 내년 초 재추진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계획을 또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하게 나온 탓이다. 케이뱅크의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은 내년 2월 말까지 유효한 만큼 내년 초쯤 다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에 공모계획을 철회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케이뱅크는 철회신고서를 통해 "최근 실시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에서 성공적인 상장을 위한 충분한 수요를 확인하지 못해 금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2월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이유로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는 4조원으로 상장준비 초기 8조원까지 언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희망 공모가 범위(9500~1만2000원)의 하단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써냈다.

이번에 발행된 신주를 포함한 케이뱅크의 총 발행주식 수는 4억1696만5151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 하단가격을 적용하면 3조9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이 4조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충분한 기업가치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재정비해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소하지 않고는 충분한 기업가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케이뱅크는 2021년 12월 53%였던 업비트 고객의 예금비중을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이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올해 17%까지 줄였다. 예치금 비중도 2021년 절반이 넘었으나 전체 수신규모 22조 가운데 3조2000억원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업비트 예치금 이자율은 연 0.1%에서 연 2.1%로 오른상태다. 업비트 예치금 3조20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케이뱅크의 연간 이자부담은 640억원이다. 또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락할 경우 예치금 대량인출상태(뱅크런) 발생 가능성도 있다.

지난 15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런 우려와 관련해 "업비트 예치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와 같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의 아주 안정적인 운용처로만 매칭시켜 운용 중"이라며 "업비트 예치금이 빠져도 예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뱅크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행장의 답변과 달리 실질적으로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서비스로 성장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올바른 기업가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115@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르게 行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라, 옳은 길을 가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이 됩니다

바른 경영, 바른 금융이란
오래전부터 알고있던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
그 가치를 고객과 함께 하는 것,

BNK 금융그룹이
바른 경영으로 바르게 行하겠습니다



‘맹탕 국감’ 지적에도… ‘김건희 vs 이재명’ 맹공 이어질 듯

법사위, 오늘 대검찰청 국감 실시
野,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집중질의
輿, 이재명 ‘재판지역’ 의혹 주장

3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국감)가 민생 논의가 두드러지지 않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주 종합감사에 들어가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국감 기간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질의한 내용을 재점검하는 종합감사에서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각과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질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여야의 격전지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연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검찰청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질문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다. /뉴스시스

대한 국감이 실시되기도 전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종합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대검찰청 주요 수뇌부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법사위의 주요 화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게 지역구를 바꿀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의힘 제22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당시 대선 경선 후보)에게 제공하고 그 여론조사의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엔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각급 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지연’ 의혹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결심을 마치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1·2·3심이 1년안에 선고를 마치고 규정이 돼 있는데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1심 선고

까지 2년 이상 걸린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검찰청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씨의 타이스트라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정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국내 주요 기업 대표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국감 증인엔 김동관 한화그룹 전락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피터안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피터 알 텐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韓, 오늘 면담서 ‘김건희 리스크’ 등 당정관계 향방 결정

독대 아닌 정진석 동석한 차담 형식
韓 “변화·쇄신 필요성 등 논의할 것”
尹, ‘모든 요구 수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마주 앉는다. 두 사람이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로 꼬인 당정관계와 여권 전체의 리스크가 된 ‘김건희 리스크’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의 특별한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일정과 관련해 “변화와 쇠퇴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달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영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찬에서 두 사람의 독대는 없었다. 대신 재·보궐선거 이후 만나기로 별도로 협의했다.

다만 약 한 달만에 이뤄진 이번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사용하던 용어인 ‘독대’가 아닌 ‘면담’이라고 표현했고, 만남도 독대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동석한 차담

형식이 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당정관계의 향방이 결정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는 여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고리로 탄핵을 주장하는데,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야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 대표가 이 자리에서 직접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게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두고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인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한 대표 및 여권 일각에서 ‘한남동 라인’을 언급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두 사람 간 만남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한 대표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표는 당정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윤 대통령은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을 공간이 크다. 이에 제2부속실 설치나 개각, 참모진 개편 등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깊어진 골을 메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그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여러 차례 올라온 바 있는데, 이번 면담 역시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간 한 대표가 언론을 통해 독대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에 동석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시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反정부’ 여론조성 강화 나서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을 이용해 장내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가운데, 다음달 2일부터는 장외에서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검토하겠다는 반(反)정부 여론 조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격분하며 장외투쟁을 전면으로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범국민대회에 시민단체와

의 결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법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결국 목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직접 언급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후원회’ 행사를 주관해 논란이 된 바 있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했다. 또 “탄핵을 당할 것인가. 사퇴할 것인가. 신중히 선택하라”고 했다.

다만,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한 번도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번 국감에서 봤듯이 (여당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을 서슴치 않고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차원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SMR 4기 건설,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대통령실 “연말에 발표할 예정”

대통령실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건설 방안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350MW(메가와트)인 SMR를 4기 정도 묶어야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수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며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과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SMR는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이라서”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SMR는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를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적시에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기억합니다

62년 전 정유공장을 짓던 다짐을
우리 손으로 원유를 캐내던 열정을

기약합니다

석유제품부터 배터리까지
우리의 기술로 전세계가 움직일 날들을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QR코드를 찍고
내일의 에너지를
확인해보세요



연 최고 3.5% 금리... 투자처 못 찾는 돈, '파킹통장' 몰린다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 금리 ↓
금리 높은 수시입출금 통장 인기
은행, 주거래 고객·수신확보 효과
예가람저축은행 파킹통장 연 3.5%

최근 예·적금 금리가 내려가면서 고금리 '파킹통장'을 찾는 재테크족이 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는 등 쓸쓸한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파킹통장이란 요구불 예금의 하나로 짧은 기간 돈을 넣어두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말한다. 고객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은행권 파킹통장 기본금리〉

은행	상품명	기본금리
전북은행	씨드모아통장	2.83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2.30%
SC제일은행	제일EZ통장	2.10%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유리한 쪽으로 자금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은행입장에서는 주거래 고객과 수신 확보에 파킹통장이 효과적인 수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시입출식 저축예금 잔액은 8월기준 683조5918억원으로 전달(683조5257억원)과 비교해 661억원 증가했다. 1년 전 같은 기간(668조1730억원)과 비교하면 15조4188

〈은행권 파킹통장 기본금리〉

저축은행	상품명	기본금리
예가람저축은행	E-RUN파킹통장	3.50%
에이온저축은행	플러스자유예금	3.20%
IBK저축은행	IBKSB e-파킹통장	3%

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수시입출식 저축예금, 파킹통장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고, 주식 시장 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처를 결정하기보다 시장을 관망하려는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 기본금리 기준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파킹통장은 전북

은행의 '씨드모아통장'으로 연 2.8%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전북은행 첫 거래 고객으로 가입 당일 신규 고객으로 등록하거나 직전 1개월동안 원화 입출금통장 보유이력이 없으면 가능하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도 연 2.3%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루만 넣어둬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5000만원 이상 보관 시 연 3%의 금리를 제공한다. 제일은행의 '제일이지(EZ)통장'은 연 2.1%의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에서는 기본금리 기준 최대 연 3.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의 이-런(E-RUN) 파킹통장은 연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1억원 이하로, 매분기

(3·6·9·12월)의 세번째 토요일까지 계산된 이자를 다음달 원금에 가산해 지급한다.

에이온저축은행의 '플러스자유예금'은 금액 제한 없이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고 'IBKSB 이(e)-파킹통장'은 연 3%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은 OKx토스플러스통장으로 연 8%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토스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 30만원까지 연 7.1%의 기본금리, 0.9%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OKx테크통장'은 예치금액 50만원까지 최고 연 7%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잠실·초역세권·분양가 매력에 견본주택 대기만 3시간

부동산 현장 르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교통·생활인프라 다 갖춰 흥행 예고
주변 대비 10억 안팎 시세차익 기대

"사람이 많을까봐 견본주택 오픈 첫날에 왔는데 앞에 대기자만 500팀이 넘고 대기 예상 시간이 3시간으로 나오네요."(송파구 거주 A씨)

'로또 청약' 소문으로 지난 18일 문을 연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서울 잠실권에서는 거의 20여년 만에 들어서는 신축인데다 지하철역까지 몇 분 안 걸리는 초역세권,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안팎까지 저렴한 분양가도 한 몫을 했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최고 35층으로 총 2678세대의 대단지다. 잠실권으로 보면 지난 2008년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 지움)'와 파크리오 이후 처음 나오는 신축 아파트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건설 현장.

/안상미 기자

일반분양 물량은 589세대다. 주택형별로는 ▲43㎡ 114세대 ▲59㎡ 118세대 ▲74㎡ 35세대 ▲84㎡ 297세대 ▲104㎡ 25세대 등이다.

청약 흥행은 이미 예고됐다. 입지가 워낙 좋은데다 규제 지역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4, 5번 출구와 붙어 있고, 2호선과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바로 맞은편으로는 올림픽 공원이 위치해 공원 전경

이 펼쳐지는 것은 물론 시야가 막힘없이 트여있다.

입주민이 배정받는 잠실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있고, 잠실중, 방이중, 잠실고 등도 가깝다. 서울아산병원과 롯데월드몰 등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견본주택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84㎡D 타입(177세대)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유닛이 마련됐다.

커뮤니티 가운데 돌봄센터와 보육시

설, 스카이라운지, 주민운동시설 등은 공개방시설로 운영된다.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단지 외부쪽으로 배치했고, 스카이라운지의 경우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입주민과 다르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으로 3.3㎡당 5409만원이다. 주택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43㎡ 11억1520만원, 59㎡ 15억2260만원, 84㎡ 19억870만원, 104㎡22억5180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국민평형인 84㎡ 기준으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신천동에서는 입주 17년차인 잠실파크리오가 올해 7월 25억원에 거래됐으며, 잠실동에서는 2008년에 입주한 리센츠가 28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청약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4일 2순위를 진행한다. 규제지역으로 2년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해당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입주는 내년 12월로 예정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금융-중기부-한경협 소상공인 발굴·육성 스타콘 페스타 개최

KB금융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2024 스타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 스타콘 페스타'는 기업가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소상공인을 발굴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28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50여 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4 스타콘 페스타' 개막전이 열린다.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판매부스를 비롯하여 밴드공연, 행사참가고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개막전에 이어 참가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 특별판매전이 3일간(29~31일) 진행되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온라인 특별기획전(10월 28일~11월 8일)도 2주간 열린다.

KB금융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우수소상공인의 참가와 제품 판매·홍보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2024 스타콘 페스타' 기간 중 판매된 금액만큼 참가 소상공인의 물품을 구매하여 미혼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는 '1대1매칭 기부 캠페인'도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판매전에 방문한 시민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도 함께 할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국가적 중대사인 저출생 문제의 해결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부동산PF 정상화 신호탄... 캠퍼드, 3개월 간 비수도권 등에 2100억 투자

캠코, 'PF 정상화 펀드' 출범 1년
금리인하에 투자 속도 빨라질 듯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출범한 '캠코 PF 정상화 펀드'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캠코 펀드가 지난 3개월 동안 3곳의 사업장에서 2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가운데 출범 이후 최초로 비수도권 사업장에도 투자하면서, 얼어붙은 PF 시장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가 출범 이후 1년간 자금을 투입한 장기 중단 PF 사업장은 총 6곳이다. 서울 5개 사업장(강남구 1곳, 마포구 1곳, 성동구 2곳, 중구 1곳) 및 대전 1개 사업장(유성구)에 투자가 진행됐다. 총 투자 규모는 약 3800억원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는 장기 침체 상태에 놓인 부동산 PF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캠코가 5000억원, 선정된 5개 위탁운용사(이지스·신한·캐스톤·코람코·KB)가 총 6050억원을 출자해 1조105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했다.

캠코 펀드는 다수의 민간 위탁운용사가 참여한 가운데 캠코가 앵커 투자자(투자 비중이 가장 크며 투자 전략을 견인하는 투자자) 역할을 맡고, 사업성이 있으나 장기간 중단 상태에 놓인 PF 사업장의 채권 조정을 통한 사업 재확화를 목표로 했다.

출범 초기 캠코 펀드는 높은 매도가격을 원하는 대주단과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투자운용사의 눈높이 차이가 커 당초 목표로 했던 부동산 PF 시장의

투자 및 사업 재확성에 실패했다.

캠코 펀드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자금을 투자한 사업장은 서울 3곳(중구·성동구·마포구 각 한 곳)에 그쳤다. 투자 금액도 전체 펀드 규모의 15% 수준인 1700억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신규 대출을 통한 '뉴머니' 투입을 허용하고, 대주단에게는 향후 캠코 펀드가 PF 채권을 처분할 때 우선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선안을 도입했다. 개선안 도입 이후 캠코 펀드가 지난 3개월 동안 신규 집행한 사업장은 3곳(강남구·성동구·대전 유성구 각 한 곳)이다. 총 투자 규모는 약 2100억원을 기록해 앞선 8개월간 집행했던 투자액보다 많았고, 이달 초에는 출범 이후 최초로 비수도권 사업장에서 채권

조정이 성사됐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캠코 펀드의 투자도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공공자금을 투입해 조성된 캠코 펀드가 지방 사업장에 대한 투자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남주 캠코 사장에게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범한 캠코 펀드가) 문제가 되는 지방 사업장을 지원해야지 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투자하느냐"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현대차, '크레타 EV' 출시 임박... 인도 전동화시장 본격 공략

〈해외 전략형 SUV 모델〉

아이오닉 5 등 SUV 라인업 확장
크레타 EV, 내년 1월 출시 예정
2030년까지 5개 전기차모델 투입



현대자동차 인도 SUV 라인업

현대자동차가 해외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크레타 EV로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내년 초 첫 현지 생산 전기차 SUV 모델 '크레타 EV'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출시한 현지 전략 SUV 알카자르의 부분변경 모델에 이어 현지 전략 SUV 라인업을 확장한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크레타 EV는 지난 2015년 출시한 현대차의 첫 인도 전략 SUV인 크레타의 전기차 모델이다. 크레타 EV는 1998년 인도 첸나이 공장이 생산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로 상세 제원은 출시 시점에 공개된다.

현대차는 올해 9월 현지 전략 SUV 알카자르의 부분변경 모델도 출시했다. 이번 부분변경 모델은 새로워진 외관과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해 현지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현대차는 이처럼 현지 시장 상황과

인도 고객 수요를 공략한 현지 전략 SUV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 진출 초기에 i10, 썬트로 등 경·소형 차량을 주력 차종으로 판매했다. 썬트로는 첫 현지 전략 차종으로 '인도 국민 경차'로 불릴만큼 인기를 끌어 현대차는 진출 첫해부터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인도 자동차 시장 성장에 맞춰 2015년 7월 첫 현지 전략 SUV 모델 크레타를 출시했다. 넓은 후석 공간과 실내 공기청정기 탑재 등 현지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한 크레타는 출시 후 3개월 연속 인도 전체 SUV 중 월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출시 첫 해에만 4만 888

대가 팔리며 '2016 인도 올해의 차(ICOTY)'로도 선정됐다. 현대차는 크레타의 성공에 힘입어 2021년 3월 SUV 알카자르, 2023년 엔트리 SUV 엑스터를 연달아 출시했다.

현대차는 여기에 베뉴, 투싼, 아이오닉 5까지 총 6종의 차급별 SUV 라인업을 구축해 인도 자동차 시장 판매 '톱티어'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현대차는 2016년 연간 판매 50만대 돌파에 이어 지난해에는 60만 2111대를 판매해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며 14.6%의 시장 점유율로 전체 브랜드 중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도 시장 SUV 판매 대수는 전체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36만 854대를 기록했고 그 중 크레타, 알카자르, 엑스터 등 현지 전략 SUV 차량 3종이 총 22만 6155대가 팔렸다.

올해는 9월까지 45만 9411대가 팔렸고 그 중 SUV 판매가 30만 8462대로 67%를 차지한다. 현대차는 올해 인도 시장에서 60만 5000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인도에서의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중추적 모빌리티 기업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100만대 생산체제·전동화 생태계 구축 등 2030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인도를 방문해 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탄소 밋팅을 갖고 현지 임

직원들과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GM으로부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푸네공장을 인수, 20만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목표로 설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푸네공장이 가동되면 현대차는 첸나이공장(82만 4000대)과 푸네공장을 주축으로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현대차는 크레타 EV의 출시와 함께 인도 전기차 선점을 위한 전동화 사업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크레타 EV를 포함해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인도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공개매수 중지 분수령... 핵심쟁점 배임 소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르면 금일 2차 가처분 판결
"투자자, 주가 급락락 주의해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사건 심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의 배임 소지, 임의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BM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금일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제시한 주당 89만원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지 ▲임의적립금을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 취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대주주 영풍이 참여할 수 없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

는지 여부 등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법원 판결 직후 고려아연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 주식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영권 분쟁 이후 50만원대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던 고려아연 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첫날인 지난 9월 13일 당시 공개매수가인 66만원을 넘긴 데 이어 지난 9월 70만원대 이상으로 크게 뛰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 시작된 이후에는 83만원까지 올랐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8일 종가는 82만 4000원이다.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지난 13일 마무리됐다. 영풍·MBK는 지분 5.34%를 확보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만 남은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자사주 매수가 무산되면 주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법원이 2차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고려

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으로 최종 제시한 89만원 안팎까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4월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 6000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최 회장은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응해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아연 지분 7.83%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년 전 고려아연 주총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이후 임시주주총회 날짜가 결정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의견결정 행사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진행된 '수소터빈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에너지빌리티, 수소터빈 개발 성과 공유

수소터빈 국제공동 R&D 심포지엄
"연구협력 통해 미주시장 참여 확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미국 대학과 국제 과제로 수행 중인 수소터빈 연소기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미국 현지에서 수소터빈 기술력 홍보를 위한 '수소터빈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미국 주요 대학에서 수행 중인 수소터빈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미국 내 수소

터빈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6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한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Tech)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가스터빈과 수소터빈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미국 주요 대학과 진행한 수소터빈 연소기 노즐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 G장은 "연구협력을 통해 수소터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미주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국제선 이용객 21% 증가... LCC, 분기실적 '청신호'

항공 수요 견조... 유가·환율 변수

3분기 국제선 이용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는 등 항공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저비용항공(LCC)업체가 다소 부진했던 2분기 실적을 만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 실적은 환율이나 유가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지만, 3분기 여객 수요가 탄탄했고 유

가 변동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변동 문제가 크게 없었던 만큼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3분기 LCC 국제선 이용객은 802만 57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 3분기 국제선 이용객은 655만 4665명이다. 전체 국제선의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동남아·일본 노선의 수요가 견

조하다. 3분기 동남아 노선 이용객은 68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일본 노선은 61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LCC업계 관계자는 "3분기 실적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고, 승객 수뿐만 아니라 유가나 환율도 고려해야 한다"며 "낙관도 비관도 아닌, 11월 실적 공시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이스타항공, 'B737-8' 12대 구매 계약

이스타항공이 세계적인 항공기 공급 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기단을 확장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B737-8 항공기 12대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15대의 기재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2025년 7대, 2026년 5대를 도입해 2026년까지 항공기를 27대로 늘릴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3년 3월 항공

기 3대로 운항을 재개했다. 이후 1년 7개월 동안 12대를 추가 도입해 15대까지 기단을 확장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대주주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큰 폭의 매출 증대를 확산하며 안정적인 흑자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소형모듈원자)

글로벌 빅테크, SMR로 전력 확보 국내는 기술·인프라 등 걸음마 단계

탄소중립 달성 위한 SMR 도입 가속
아마존·구글 등 전력난 해결 박차
韓,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급 대응
사회적 합의·규제 개선 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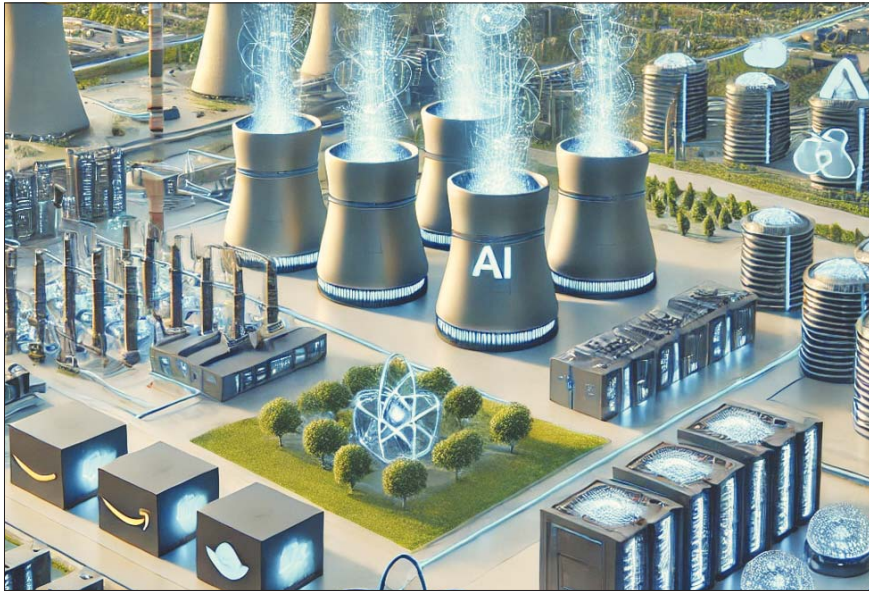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SMR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들이 SMR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지난 16일(현지시각) SMR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SMR 개발 계약을 체결, 300MW(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에너지 기업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협력해 960MW까지 전력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며, SMR 원자력과 연료 개발사 'X-에너지'와 함께 2039년까지 미국 내 전력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매트 가빈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경영자(CEO)는 "SMR은 안정적인 탄소 중립 에너지로, 우리의 기후 약속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역시 지난 15일(현지시각) SMR 개발 스타트업인 카이로스파워와 협력해 2035년까지 총 500MW의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는 수십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구글의 에너지 및 기후 담당 이사인 마이클 테렐은 "2030년까지 첫 원자로를 가동하고, 이후 2035년까지 SMR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챗GPT에 의해 생성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도입한 모습'을 담은 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미 지난 달에 미국 원자력발전 1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20년간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콘스텔레이션 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꼽히는 스리마일섬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반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SMR 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충당하고 있으며, 아직 SMR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바 없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SMR 도입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2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SMR 4기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올해 초 SMR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다만 국내에서 SMR 도입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미국 등 해외 정부는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외 빅테크 기업의 SMR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SMR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는 SMR의 설계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MS의 스리마일섬 재가동 프로젝트도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등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주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에서도 SMR 도입을 추진하려면 정부 차원의 협력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SMR 상용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안전성 검증, 규제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자연어처리 학회에 'AI검색' 논문 채택

네이버 'EMNLP' 논문 4건 선배

네이버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 자연어처리(NLP) 학회 'EMNLP2024'에서 검색 기술 관련 연구를 포함해 논문 4건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EMNLP는 북미컴퓨터언어학회(NAAACL)와 함께 NLP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AI 학회로 꼽힌다. 이 학회는 AI 번역, 챗봇, 기계 독해 등 언어 데이터 기반 자연어처리 접근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다룬다.

이번 논문에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큐(CUE:)'에 적용된 알고리즘 연구가 포함됐다.

이 연구는 소형언어모델(SLM)을 사용하는 모듈식 접근법을 통해 유해 질의를 탐지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메커니즘을 다룬다.

네이버는 이 연구 성과를 지난해 11월 '큐:'에 적용해 범죄·유해 등 불법 정보, 저작권법 및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한 질의를 판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번 연구 성과를 실제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검색 품질과 사용성을 높이는 등 서비스 가치 창출과 연구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는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 검색어와 연관된 주요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하는 '지식스니펫' 서비스에서 정보를 추출할 때 텍스트뿐만 아니라 리스트, 테이블 등 복잡한 형태의 스니펫(정보)까지 AI가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제안했다.

해당 기술은 내년 상반기 지식스니펫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롱테일 질의(길고 복잡한 검색어)에도 정확히 답변하는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거대언어모델(LLM) 문서 랭킹 능력을 소형거대언어모델(sLLM)에 이식해 검색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도 발표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검색 서비스에서 속도 저하 없이도 LLM만큼 품질을 낼 수 있는 기술로, 지난 6월 네이버 통합검색 서비스에 적용됐다.

/이혜민 기자

"AI로 반복업무 줄이고, 업무혁신 도모"

KT '크롬프톤' 경진대회 개최

KT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위해 생성형 AI 프롬프트 경진대회 '크롬프톤'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크롬프톤은 KT와 프롬프트, 해커톤의 합성어다. KT 임직원들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롬프트를 개발하는 경진 대회다. 프롬프트는 AI 모델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어로 이를 활용해 코딩 경험 없이 간단한 작문만으로 프로그래밍에 준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번 경진 대회는 KT의 사무 업무 중 반복적인 부분과 생산성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개개인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프롬프트는 전사에 확산시켜 생산성을 늘릴 예정이다. 범용성을 위해 출품작에는 워드, 엑셀 등 일상적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어플리케이션과 연계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KT 생성형 AI 프롬프트 경진대회 '크롬프톤'에서 KT 직원들이 AI 업무 혁신을 위한 프롬프트를 개발하고 있다.

/KT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20개의 팀은 1박 2일간 KT 원주연수원에서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의 본선을 치렀다. 본선에서는 상위 7개 팀이 출품작 발표 및 시연을 통해 최종 심사를 받았다. 심사에는 KT와 AI·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 대상은 사업 제안 전략을 주제로 프롬프트를 개발한 'T3팀'이 차지했다.

/이혜민 기자

SKT "전화 걸면 AI 영상이 컬러링으로"

이통3사, V컬러링 AI영상 공모전
AI기반 'V컬러링' 신규 콘텐츠 발굴
대상에 '환상별곡' 조규대씨 수상

SK텔레콤이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 공모전을 통해 'V컬러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V컬러링은 전화를 건 상대방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게 않게 내가 설정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부가서비스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함께 '2024 V컬러링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V컬러링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자 지난 9월9일부터 진행됐다. 이달 18일 V컬러링 앱 및 모바일 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상작이

공개됐다.

SK텔레콤은 ▲AI 기술의 창의적 사용 및 독창성 ▲V컬러링 서비스와의 적합성 ▲영상의 기술적 완성도 및 품질 ▲심사 기간 중 받은 좋아요 수와 조회수 합계 등의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는 대상을 포함해 총 20개 팀(개인)이 선정됐다. 대상의 영에는 '환상별곡' 작품으로 응모한 조규대 씨에게 돌아갔다.

대상을 수상한 조규대 씨는 "화려한 이미지나 이펙트 보다는 사용자가 빠르게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며 "의도한 주제가 잘 전달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들에게는 상

장과 함께 대상 1팀 500만원, 금상 1팀 200만원, 은상 2팀 각 100만원, 동상 3팀 각 50만원, 우수상 10팀 각 10만원, 인기상 3팀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20개 작품들은 V컬러링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앱 및 모바일 웹을 통해 고객들이 V컬러링 콘텐츠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될 예정이다.

윤재웅 SK텔레콤 구독마케팅담당은 "예상보다 참여자들의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수준이 높았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V컬러링이 고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에는 숏폼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AI 기반 기업용 회의록 관리 서비스

네이버클라우드 클로바노트 출시

네이버클라우드가 자사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회의록 관리 서비스 '클로바노트'의 기업용 서비스인 '네이버 워크 클로바노트'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클로바노트 기업용 버전은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회의 내용을 저장,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의 데이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새로 출시된 '네이버 워크 클로바노트'는 기업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2단계 인증, 접

속 IP 대역 제한, 접속 단말 제어 등의 보다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 기업 환경 맞춤도 가능하다. 기업들은 업계 전문용어, 기업 내 고유명사 등을 '자주 쓰는 단어'에 등록해 각 기업에 특화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주소록 기능을 활용해 구성원 간 업무 목적의 녹음 파일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과 웹에서 사용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동기화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3분기 실적부진·美 대선 등... 국내증시 불확실성 '가중'

코스피 지수, 3주 연속 2600선 하회
외사, 삼성전자 순매도 역대최장 경신
3분기 순이익 전망, 0.5% 하향조정
역사적으로 美 대선 앞두고 약세 보여

국내 증시 부진 지속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 부진, 미국 대선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보수적인 투자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3.09포인트(0.12%) 내린 2593.82로 3주 연속 2600선을 밑돌았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1조1618억원 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609.30)보다 15.48포인트(0.59%) 하락한 2593.82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65.06)보다 11.84포인트(1.55%) 내린 753.22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3754억원, 5955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순매도는 28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장 기간을 연일 경신 중이다. 같은 기간 코

스닥 지수는 시장 비중이 큰 이차전지주의 부진 속에 전주보다 17.76포인트(2.30%) 내린 753.22를 기록했다.

향후 국내 증시는 중요 경제지표 발

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요 대형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양호한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이기보단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거나 이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최근 2주간 50조4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0.5% 하향 조정됐다. 4분기 전망치는 45조9000억원에서 44조원까지 4% 낮아지는 등 하락 폭이 더 컸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둔화하고 수출 기업들의 환율 효과도 축소된 영향"이라며 "실적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치락 뒤치락하며 백중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수시로 높아질 수 있어서다.

또한 역사적으로 국내 증시가 미 대선을 앞두고 약세를 보여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년 이후 미국 대선 해를 기준으로, 그해 10월말 혹은 선거일까지 2~3주간 코스피와 코스닥 추이를 보면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났다"며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최근 6번의 대선에서 모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해외담배 호실적·강력한 주주환원 기대감

metro 관심종목
KT&G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경기방어주
3분기 실적, 시장기대치 부합 전망
증권가, 목표주가 상향조정 연이어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케이티앤지(KT&G)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담배 사업 확대로 2분기에 이어 3분기 호실적도 기대되는 가운데,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G의 주가는 하반기 들어 21.09% 올랐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면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KT&G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6533억원, 영업이익 3822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됐다. 3개월 전

까지는 시장의 예상 영업이익이 약 400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부동산 부문의 선방 등을 고려해 소폭 낮아졌다. 다만 해외 담배 실적이 부동산 부문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목표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부동산 사업부의 실적 부진을 담배 사업부가 상쇄했다"며 "국내 사업은 궤련, 궤련형 전자담배(NGP) 모두 시장 점유율 상승이 이어지고 해외 사업은 궤련 제품 주요 권역 가격 인상 효과와 함께 판매 수량이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8.3%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최근 ▲IBK투자증권 12만5000원 ▲키움증권 13만원 ▲교보증권 13만원 ▲신한투자증권 12만5000원 등이 KT&G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달 들어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이 제시한 KT&G의 목표주가 평균은 약 12만7000원이며, 마지막 거래일 기준 KT&G의 주가는 10만6800원이다.

IBK투자증권 역시 해외담배 사업 호

조를 주목했다. 부문별로 담배 매출액은 1조812억원, 영업이익은 3225억원을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2%, 19.7% 오른 수치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NGP 신규 플랫폼 해외 출시 및 카자흐스탄 신공장(궤련 및 NGP 스틱 생산) 완공에 따른 글로벌 담배 사업 확대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KT&G는 향후 3개년간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 매입·소각 1조원에, 배당 1조8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지난 2월 기준 보유 자사주(2.6%) 소각했고, 하반기 매입한 자사주(2.8%)도 10월에 소각 완료한 상태다.

조성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3대 핵심 성장 산업(전자담배, 글로벌, 건기식)에 집중한 공격적인 경영 전략과 설비투자(CAPEX) 집행이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되며 주가가 양호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2024 AI/DATA 페스티벌 시상 및 기념촬영.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AI/DATA 페스티벌' 성료

네이버 클라우드와 공동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6일 네이버 클라우드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AI/DATA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하이퍼클로바 X(HyperCLOVA X)'와 함께 인공지능(AI)으로 만드는 금융투자의 새로운 경험'이라는 슬로건으로 생성형 AI 및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진행됐다.

총 336개팀이 참가해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팀, 우수상 3팀 및 총 상금 5500만원 규모로 진행됐다. 총 5개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대상은 '퍼스널LLM'팀이 수상했다.

M'팀이 수상했다.

'퍼스널LLM'팀은 뉴스를 활용해 주가가 급변하는 원인을 분석 후 알람을 보내는 서비스를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한국어 자연어처리(NLP)에 특화된 네이버의 CLOVA Summary API 및 HyperCLOVA X를 활용해 서비스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였다.

'퍼스널LLM'팀에게는 상금 2500만원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을 통해 제안한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별도로 미래에셋증권 입사 지원 시 서류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원관희 기자

사회환원 능력 키움증권 "임원 인선 중"

엄주성 대표, 국감 출석 사실상 불발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 폭락 사태'의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위해 소환됐던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이 사실상 불발됐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약속했던 '사회환원'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임원 인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투자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후

속대책 등을 묻기 위한 출석 요구였던 만큼 올해 취임한 엄 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정무위는 당초에 증인으로 채택했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철회하고 지난 10일 엄 대표로 증인을 대신 채택했던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SG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다우키움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 이사회의장직을 사퇴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전이었던 지난해 4월 20일 시간의 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터 140만주(3.66%)를 매도했기 때문이다. 현금화해 얻은 시세차익은 605억4000만원 수

준이다. 김 전 회장의 매각 이후 SG증권 창구를 통한 대규모 매물 출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우데이터는 이를 연속하한가를 맞는 등 주가가 4일 만에 약 62% 폭락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매각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은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있으며, 재단설립을 통해 약속했던 사회환원 움직임도 진척이 느린 상황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 및 사무국장 후보자 인선 중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재단이 설립된 후 재단에서 대외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 지원

자산형성·경제적 자립 지원

금융감독원이 청년들을 위한 '1939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만 19~39세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신청·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정된 대상자(선착순 420명)들은 전문 재무설계사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지만 모집 조건으로 고려하되, 자립준비청년을 우선적으로 모

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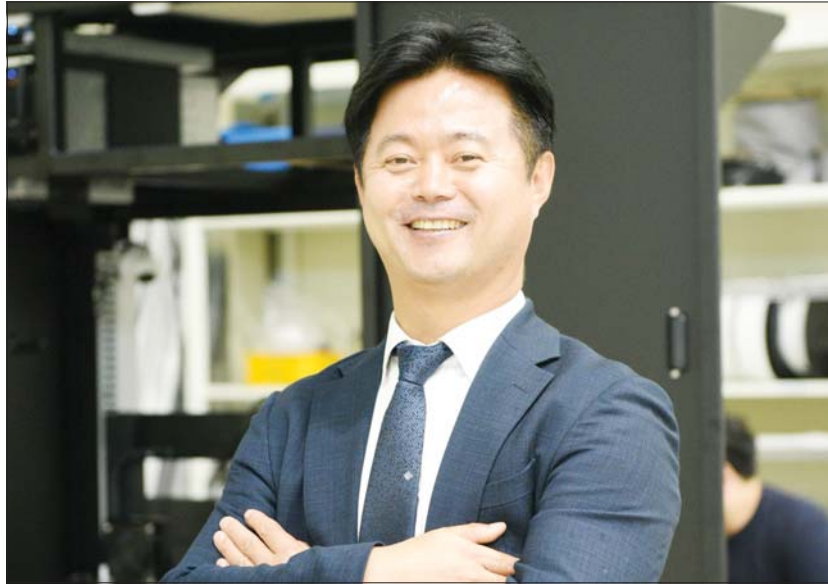
대상 지역은 경기도, 5대 광역시(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시) 및 전주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며, 해당 지역에서 상담이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21일부터 우선 모집에 들어간다.

신청방법은 '1939 청년 재무 상담'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사)한국FPSB의 전문 재무설계사가 최대 2회(1차 대면, 2차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허정원 기자 zelkova@

“15년간 매년 15%이상 성장... ‘2차전지’ 사업에 도전장”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손창석 피에스디엔지 대표



손창석 피에스디엔지 대표가 경기 화성 공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피에스디엔지의 경기 화성 공장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는 글귀를 만날 수 있다. 이는 이 회사 손창석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주문처럼 되내이는 말이기도 하다.

“나의 경영 철학과도 같은 문구다.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얻기위해선 제품에 대해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하고 테스트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도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중간에 지쳐 포기하면 결과는 당연히 실패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보자는게 우리의 비전이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회사를 창업하고 영업까지 맡고 있는 손창석 대표는 영업을 하면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거래처를 만났다. 이는 직원으로서 회사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

손대표는 “해보면 물론 안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하다보면 안될 것 같은데 반드시 되는 것도 있다. 근성을 갖고 미친듯이 하면 안될 일은 없더라. 포기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실패는 할 수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대표는 2011년 피에스디엔지를 창업했다.

피에스디엔지는 설립 초기 소프트웨어(SW) 판매 등을 넘어 이후엔 자동화 장비에 적용하는 전기 부품 및 센서, 비전 등의 판매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난 2022년부터는 자동차 장비를 터기로 받아 제작해 납품하는 일까지 확장했다. 판

매에서 제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화성공장은 그 전진기지다.

“남들이 다루기 어려운 제어기술을 먼저 습득하고 홍보해 좋은 조건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들이 한번 실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않고 반드시 마무리를 한다. 그 결과 15년 동안 매년 15% 이상씩 성장을 해 왔다.(미소)”

2021년 당시 82억원 수준이던 매출은 2022년 125억원, 2023년 25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억→4억→13억원으로 점점 늘었다.

물론 회사가 성장하면서 산고도 많았다. 가깝게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때문에 납품을 예정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멈췄다.

일거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추가 인력까지 뽑은 상태였다. 결국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

엔지니어 출신 ‘창업’, 영업도 맡아 자동화 SW·센서 등 판매, 제작까지 향후 시장, 2차전지로 갈수밖에 없어 미리 준비, 싸고 좋은상품 제작할 것 수소 분야도 관심... 7년내 IPO 도전 어려운 매일 수록 ‘사람’에 투자해야

나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 코로나에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를 제조하는 장비 시장도 성황을 이뤘다. 그동안 신뢰를 쌓았던 중국 파트너를 통해 마스크 제조설비에

쓰는 초음파 용작기를 수입해 판매했다. 다행히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됐다. 직원들 반을 내보내야했던 상황이었는데 2020년 매출이 선방했다.”

이때 손대표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이것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달려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는 현재 2차 전지 분야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향후 시장 전망도 매우 밝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술트렌드를 읽고 선점하기 위해 그가 매년 빼먹지 않고 가는 곳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하노버 산업 전시회’다. 소프트웨어나 센서 등을 판매하던 것에서 장비를 제조해보자는 목표도 하노버 전시회를 통해서 마음 먹게 됐다. 2차 전지 시장의 가능성도 그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손대표는 “산업이 뜨고 영업하면 이미 늦는다. 평소 고객을 많이 만나는 것은 이런 이유다. 앞으로 시장은 2차 전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된다. 다만 원가절감이 최대 이슈인 만큼 우리는 싸고 좋게 만드는 기술을 지향한다”고 전했다.

2차 전지 외에 수소 분야도 관심을 갖고 있다.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연료로 꼽히는 수소시장도 분명 확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손대표는 향후 5~7년째는 기업공개(IPO)도 생각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미리 선점을 위한 투자와 특히 인력 추가 보강을 위해서도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종 업종 회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도 현재 수준의 인원을 당분간 끌고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어려운 매일 수록 미래를 준비하기위해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한다. 고객사는 결국 준비된 회사에게 일감을 주기 때문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18일 강원 속초 수협 항만부지에서 열린 ‘2024 전국우수시장박람회, K-전통시장 페어 in 속초’에서 관계자들과 개막 세리머니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홍기부

230개 점포 참여 ‘K-전통시장 페어’ 성료

중기부, 400여개 우수상품 선별 전통시장 역사관·어린이 그림전 열고 사물놀이·줄타기 등 전통놀이 즐겨

강원도 속초에서 사흘간 열린 ‘2024 전국우수시장박람회, K-전통시장 페어 in 속초’가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제20회를 맞이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강원도 속초 수협 항만부지에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130여개 전통시장 및 230여개 점포가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400여개 전통시장 우수상품과 100여개 종류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선사했다.

올해 박람회는 ‘변화하는 K-전통시장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 담게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의 전통시장 우수 상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글로벌 K-전통시장’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한국 전통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할 수 있는 K-전통시장 역사관과 어린이 그림 전시전은 야외 일원에 마련했으며, 청년상인 푸드트럭과 강원도의 전통시장들은 강원특별자치도관에 별도 조성했다.

마지막 날에는 속초 국제터미널로 입항하는 누르담호 크루즈 외국인 고객 400여명도 박람회장을 찾았다.

이들은 사물놀이, 줄타기 등 민속 전통놀이와 K-POP 공연, 대형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등을 즐겼다. 한국MD협회와 협업해 초청한 10명의 MD들은 전통시장 우수 상품 평평회와 해외 수출 및 온라인 진출 기반 등의 컨설팅을 지원했다.

첫 날 개막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병선 속초시장,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및 시

장상인,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박람회의 시작을 함께 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올해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는 ‘K-전통시장 페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선보이고, 행사를 찾는 외국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다”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개막식에서 진행된 정부포상에선 전국상인연합회 이명훈 충북지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전국상인연합회 구범림 대전지회장이 산업포장을 각각 받았다.

오영주 장관은 “속초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전통민속놀이, 비빔밥 만들기 체험 등을 기획해 선보인 만큼 우리 전통시장의 우수성을 국내를 넘어 세계에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 상권도 살리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추대란에 공영홈쇼핑 ‘포장김치’ 인기

올해 주문수량 11만건 48억 판매고 가격 폭등으로 ‘배추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영홈쇼핑의 포장김치 상품이 인기다.

20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포장김치 상품의 주문수량은 11만건으로 약 48억원 가량의 판매고를 올렸다.

해당기간 방송한 10번의 포장김치 생방송 중에는 7번이 매진을 기록했다. 배추, 무 등 주요 김장 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치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배추대란’이 본격화된 9월 마지막 주 이후 편성된 4번의 김치 방송은

연달아 매진을 기록했다. 해당 시기에 방송으로 판매한 김치 8만건 중 ‘미리주문’만 1만건에 달했다.

9월 2주차부터 4주 연속 공영홈쇼핑 온라인 몰의 검색어 1위도 ‘김치’가 차지했다. 최근 한 달간 ‘김치’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횟수만 10만회를 넘어섰다.

김치 상품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공영홈쇼핑은 정기적으로 포장김치 상품을 방송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포장김치의 품귀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며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김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홈쇼핑, 임직원 윤리의식 향상 특강

‘청렴 투게더’ 행사 개최

홈쇼핑이 서울 강서구 자사 사옥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투게더’ 행사를 개최했다.

20일 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속명여대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를 초청해 윤리 경영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행사에서 윤리경영 백일장, 칭찬 편지 쓰기, ‘청렴 투게더’ 포토티뷰 등 다

양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 임직원들이 윤리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홈쇼핑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독려해왔다.

고용부 산재기금,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627억 투자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 논란 산재보험기금 본래 취지에 어긋나 기금 운용 지침 개선 필요성 제기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산재보험기금이 국내주식에 간접투자 중인 3조9140억원 중 626억5881만원(1.6%) 상당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도 627억원 규모의 간접투자(사모펀드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사업장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재보험기금의 간접투자종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다발 발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323억4044만원)으로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5번이나 발생했다.

이어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86억 8172만원, 6번), 현대제철(71억4931만원, 4번), DL이앤씨(63억5246만원, 8번), 현대건설(59억8160만원, 9번), 한화(12억3892만원, 6번), 대우건설(9억 1434만원, 8번) 순이다.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규정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용으로 별도 조성된 사모펀드로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투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사실상 간접투자 범위를 설정·관리한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오히려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투자되면 기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산재보험기금 투자 대상 선정 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기업에는 기금운용사가 투자하지 않도록, 기금 자산운용지침이나 자산운용 규정 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산재보험기금 투자 대상 선정 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기업에는 기금운용사가 투자하지 않도록, 기금 자산운용지침이나 자산운용 규정 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환경부-국토부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는 21일 세종시 청암빌딩 환경부 회의실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제 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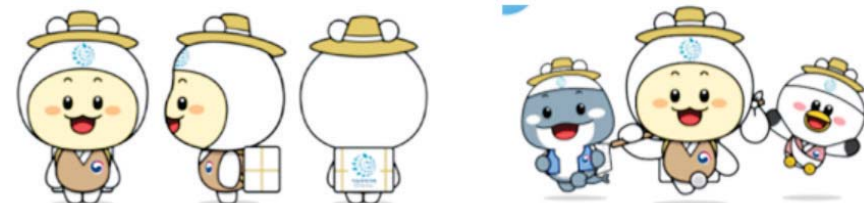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지에 대한 생태현황 등을 전수조사했다. ▲전남 여수시(여자만 갯가노을 전망대) ▲전남 고흥군(금의시비공원 조성) ▲경북 영덕군(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등 3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7월부터는 선정된 3개 시군의 생태관광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한국생태관광협회와 함께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단(컨설팅) 사업을 펼쳤다. /세종=김대환 기자 kdrh@

수출 길 넓힌다... 자유무역지역 기업들 글로벌 도전

산업부, ‘LeapUp Expo’ 개최 킨텍스서 22일~23일 수출상담 “수출 역대 최대 목표 달성 박차”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마스코트로 확정된 ‘보보’ 이미지. /산업부

국내 6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4개사와 30여개 해외 바이어 간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뿔뿔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자유무역지역 LeapUp Expo’를 22일~23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4 하반기 북업코리아 수

출상담회’와 연계해 자유무역지역 홍보전시관 등이 운영된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오는 31일까지 운영하는 올해 북업코리아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지자체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오알에스코리아, 예림도장기 등 마산, 군산 등 6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

업 14개사가 참가하며, 참가 기업은 행사 양일간 사전 매칭된 해외 바이어 30여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마스코트로 확정된 ‘보보’도 전시된다. 보보는 조선팔도에서부터 해외를 누비는 자유로운 보부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협력, 개척, 도전 정신 등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선도 기업 발굴 본격화

농식품부, 스타기업 제5호 선정



세종 농식품부 청사. /메트로

정부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이끌어 갈 국내 유망 중소기업 발굴에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촌융복합산업 스타기업 제5호에 농업회사법인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이란 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는 강원 양구의 김철호 대표를 중심으로 사과와의 부가가치 창

출을 선도하는 융복합 기업이다. 자체 퇴비 제작, 초생재배법 적용 등 다양한 농법을 통해 환경을 살리면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초생재배법이란 과수원 수목 하부에 각종 초류를 유지함으로써 강우시 토양 유실 및 양분 이탈 방지, 수분 저장 등을 이끌어내는 재배 방법이다.

유통 과정에서는 다양한 품종을 제철에 맞춰 배송하는 구독형 상품 ‘사과 사색’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 수확 시 상처가 생긴 저품질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농가와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이끌고 있다. 이 회사는 지역의 잉여 사과를 수매해 탄산주스, 과일칩 등을 제조함으로써 약 3배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사과따기 체험(팜크니)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체험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5명의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농업의 미래 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는 우리 과수농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순히 먹기만 하는 농산물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다양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폴리텍

반도체 등 16개 계열서 교수 100명 대거 채용

한국폴리텍대학은 ‘2025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16개 계열에서 교원 10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 5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교원 충원이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반도체 19명, 바이오 9명 등 첨단 분야 초빙 인원은 총 43명이다.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등에 따라 전통산업 고도화를 이끌 교원 수급도 이뤄진다.

교수 초빙에는 ‘고등교육법’과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산업체,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한다. 임용은 2025년 2월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우수인재를 확보해 산업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 평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교육의 대전환을 이뤄 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2개월 만에 4개 道 소 럽피스킨 확산

농식품부, 축산 종사자 이동금지 명령

양성으로 판명됐다.

지난 19일 경북 상주에서 올해 10번째 소 럽피스킨(LSD)이 발병했다. 이로써 지난 8월 이후 최근 두 달간 LSD 발생 지역 수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4곳으로 늘었다. 경기(4건)와 강원(4건), 충북(1건), 경북(1건)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소재 한 한우농장이 피부결절의 심축 1두에 대해 당국에 신고했다. 정밀검사 결과, 전날인 19일 오후 LSD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5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 발생지역 상주와 인접 9개 시·군(경북 문경, 예천, 의성, 구미, 김천, 충북 영동, 옥천, 보은, 괴산)의 축산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김연세 기자 kys@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 군산시·창녕·철원군 선발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할 때,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지난해 지불제를 실시한 3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불제 사업의 추진 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포항시 “글로벌 이차전지 연구개발 중심 자리매김에 집중”

‘브레인 링크 기술교류회’ 특강 전문가·연구기관 등 한자리 해외 인적교류·공동연구 활성화



이강덕 포항시장이 18일 인천 그랜드웨라톤 호텔에서 열린 브레인 링크 기술교류회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포항’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2024 브레인 링크(Brain Link) 기술교류회’에 참석한 국내외 이차전지 석학들에게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알리는 특강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8일 인천 그랜드웨라톤 호텔에서 열린 브레인 링크 기술교류회에 참석한 국내외 이차전지 전문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강덕 시장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포항’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12대 국가 전략기술의 하나인 이차전지를 매개로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연구 공유 및 네트워킹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국내외 이차전지 석학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

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기관, 대학 및 해외 재외한인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 인적교류 확대 및 글로벌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이 시장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포항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포항이 이차

전지 산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발전에 대해 소개했다.

이차전지 산업이 포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을 GRDP, 수출 등 경제 지표를 인용해 소개하고, 에코프로 등 대규모 기업 투자와 국제 사업 유치로 특화단지과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한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오는 2030년 이차전지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을 목표로 전방위 산업 육성 거점인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과 글로벌 연구 확대를 위한 해외 연구소 유치 등 미래 포항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 국제 컨벤션센터 포엑스(POEX)의 2027년 준공을 앞두고 국제 이차전지 엑스포, 글로벌 배터리 도시 포럼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행사를 소개하며 향후 전문가와 기관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당부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는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과 이차전지 해외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관련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인재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이차전지 연구개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 한울원자력 ‘감사드림’ 콘서트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 본부(본부장 이세용)는 “울진군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24년도 ‘감사드림(感謝&Dream)’ 콘서트를 한울에너지 팜 대강당에서 오는 30일 18시에 공연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드림(感謝&Dream)’은 신한울1,2호기 준공과 신한울3,4호기 착공을 맞아 울진군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와 대한민국 전력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울진과 함께 미래를 꿈(Dream)꾸고 그려나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공부방 봉사 대학생에 장학금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18일 경남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대상 아동 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지난 3년간 지역 취약계층 아동 공부방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경남 지역 대학생 총 10명을 선정해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전달식 후에는 지역 공공기관 ESG 협의체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차 직원들이 공공기관 채용 트렌드 및 면접 전략 등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멘토링도 진행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내년 농산물산지유통 분야 총사업비 252억 확보... ‘전국 최대’

농식품부 공모사업서 확보 영주시, 의성군 등 총 6곳 선정

경북도가 내년 농산물산지유통 분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대 사업비를 확보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공모 가운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분야에서는 영주시가 150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분야에서는 의성군 47억원, 상주 공성농협 34억원, 유통시설 현대화 부문에서는 남청송농협 9억원, 동문경농협 7억원, 문경 점촌농협 4억원 등 6곳이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2억원을 확보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상품화 및 규격화에 필요한 집하·선별·

저장·출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도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특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곳당 최대 150억원을 투자해 규모화된 첨단시설을 조성하고 소규모 산지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올해 김천시에 이어 내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내년 신규 선정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영주시 순흥면 일원에 1만2300㎡ 규모로 조성돼 사과 전문 스마트화장비 도입으로 상품화율을 높이고 사과 수급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매년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가 1년간 행사를 마무리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 1년 행사 마무리

1년 동안 20개 교류행사 진행

한중일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가 1년간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해시는 19일 오후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2024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의 폐막식을 개최했다. 폐막식에는 황태용 김해시장과 안선환 김해시의회의장,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 민홍철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최학범 경상남도지사, 쿠팡타 신이치 주부산일본국 총영사관 수석영사, 우리비 주부산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성시 대표단, 한중일 협력사무국, 이만기 홍보대사 등이 참석했다.

중국의 올해 선정도시이자 ‘세계연의 수도’ 웨이팡시에서 시를 대표하는 연계승자를 비롯한 연대표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유산 가야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성동 고분군에서 한-중 대형 연날리기 행사에 참여하며, 두 도시 간의 ‘연(緣)’을 앞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1년 동안 20개의 교류 행사를 진행하면서 3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중국 다렌시와는 11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해남군, 명량대첩축제서 韓-中 우호 증진

中 정부 관계자·진린장군 후손 방문

2024 명량대첩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 옹원현·운안구의 정부 관계자들과 진린장군 후손들이 해남을 방문했다.

진린장군은 정유재란(1597년)이 발발하여 수군 파병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명나라 수군의 도독으로 임명되었으며, 1598년 이순신 장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인물로서, 특히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에는 진린장군의 유지에 따라 후손들이 이주·정착해 광동진씨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진린장군의 사당인 황조별묘가 위치해

한-중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진린장군의 출생지인 광동성 옹원현과 지난 1999년 자매결연을 체결해 매년 명량대첩축제에 진린장군 후손 등을 초청해 교류하는 등 우호협력이 이어온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운부시 운안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올 3월 협약을 통해 양 도시간 청소년,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올해는 축제 참가 외에도 옹원현과 운안구의 축구대표팀이 함께 입국해 해남군 축구협회와 친선경기를 갖는 등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가을 섬 ‘완도’서 힐링 받고 가세요”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개최

‘2024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화 전시회와 해양치유 및 맨발 걷기 체험, 청산도 은하수 투어,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먼저 국화 전시회는 국화 3만 본을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 식재했으며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

해양치유 체험은 모래 테라피, 머드 랩핑, 해변 요가·명상·노르딕 워킹 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5일과 26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신지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 ‘어썸 블루 치유 콘서트’가 열린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대구시

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대구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대구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체육관에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구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강은희 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선수단 200여 명이 참석해 대회를 앞둔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러분들의 도전은 단순한 기록을 뛰어넘어 장애를 초월하고,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부상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진주시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 개장

경남 진주시는 정촌면 화개리에 13홀 규모로 조성된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을 정식 개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백승홍 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남도의원, 시의원, 진주시 체육회장 및 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진주시는 어르신 이용 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 체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3500㎡에 13홀 규모의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하늘에서 ‘K-푸드’ 즐겨요”... 식품업계, 기내식 개발 속도

CJ제일제당 티웨이항공과 ‘맞손’ 소고기 버섯죽 등 기내식 2종 선배 호주 콰타항공 ‘비비고 만두’ 제공

신세계푸드, 대한항공C&D 협약 식물성 기내식 메뉴 개발 나서

아워홈 기내식 업체 ‘하코’ 인수 10개국 항공사에 기내식 제공



대한항공C&D - 신세계푸드 MOU 체결식.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 신세계푸드 본사에서 신세계푸드 송현석 대표(왼쪽 네번째)와 대한항공 C&D 최덕진 대표(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사간 상호협력 증진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신세계푸드

식품업계가 여행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내식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기내식은 높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내부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 자체만으로는 개발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항공사들은 식품기업과 손잡고 기내식을 개발하는 추세다.

식품사 입장에서 기내식 사업은 새로운 수익원이자 외국인들에게 K-푸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항공사의 경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기내식 개발에 힘을 주고 있는 분위기다.

2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CJ제일제당은 끊임없는 R&D 연구와 전용라인 투자를 통해 기내 환경에 최적화된 조리과 취식 조건을 확보하고 최상의 맛 품질 구현에 힘썼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완제품 냉동 기내

식 개발에 성공,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항공사에 기내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과 손잡고 기내식 메뉴 2종을 선보였다.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리는 유럽행 노선에 제공되는 메뉴로 ‘소고기 버섯죽’과 ‘소시지&에그 브런치’를 제공한다.

기내 조리 조건에 맞춰 최적의 죽 식감, 토핑의 구성과 크기를 적용해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조화롭다. ‘소시지&에그 브런치’에는 CJ제일제당의 차별화 기술인 ‘에어 셀(Air-cell)’ 기술을 적용해 포슬포슬함을 살렸으며 기

내 오븐 조리에 최적화된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이달부터는 호주 최대 규모 항공사 콰타항공(Qantas) 기내식으로 비비고 만두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 영국(런던), 싱가포르, 필리핀(마닐라), 일본(도쿄), 캐나다 등을 오가는 국제선과 퍼스(Perth)행 국내선 승객들의 간식으로 제공중이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노선을 운영하는 만큼 비비고 만두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푸드는 대한항공C&D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치소비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식물성 기내식 메뉴 개



CJ제일제당-티웨이항공 공동개발 기내식 신제품 2종(위), CJ제일제당이 호주 콰타항공에 납품하는 기내식 비비고 만두. /CJ제일제당

발에 나섰다.

대한항공C&D는 신세계푸드의 식물성 대안식품을 활용한 기내식 메뉴 개발과 항공사 공급을 확대하고, 신세계푸드는 식물성 기내식에 적합한 대안식품의 개발뿐 아니라 한식, 중식, 양식 등에 최적화 할 수 있는 메뉴를 제안하며 대한항공C&D가 수준 높은 식물성 기내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세계푸드 측은 “건강, 가치소비 등의 이유로 식물성 대안식품을 즐기는 고객들이 항공사 기내식으로도 다양한 메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C&D와 뜻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아워홈은 일찍이 지난 2018년 한진중

공업그룹의 기내식 서비스 업체 하코(HACOR)를 인수하고 기내식 시장에 뛰어 들었다. 업무협약이 아닌 기존 기내식 업체를 인수해 직접 미국, 싱가포르, 일본, 튀르키예 등 10개국의 글로벌 항공사에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인수하고 이듬해인 2019년 하코의 매출은 721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247억원, 2021년 244억원으로 매출이 급감했다. 이후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하늘길이 열리면서 매출은 지속 성장세다.

지난해 하코 법인의 매출은 871억원으로 전년(622억원) 대비 40.0% 증가했다. 아워홈이 하코를 인수한 후 최대 매출이다.

아워홈은 하코를 등에 업고 글로벌 사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아워홈이 주력하고 있는 지역은 미국으로 기내식 사업 외에 2021년 미국 우정청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사업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내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재도 기내식 외에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식품(라면, 만두)을 찾는 고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나라셀라, 이마트서 특별와인 3종 선봬

‘브랜드 나파 밸리 레판드르’ 등 와인장터서 특별한 가격에 판매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마트 가을 와인장터에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특별한 와인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특별한 와인은 ‘브랜드 나파 밸리 레판드르’와 ‘마리타나 라 리비에르 샤도네이’, ‘비에티 바롤로 카스틸리오네’ 3종이다.

먼저 ‘브랜드 나파 밸리 레판드르’는 나라셀라와 브랜드 나파 밸리가 협업해 탄생한 와인으로 세계적인 컬트 와인메이커 ‘필립 델카’가 와인메이킹을 총괄했다. 소문이나 유행이 ‘퍼지다’, ‘퍼트리다’는 뜻의 프랑스어 ‘레판드르’는 와인의 향이 기분 좋게 퍼지는 의미를 담았다. 오크빌의 파워풀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카버네 소비뇽을 주품종으로 사용한 보르도 블렌딩 와인이다.



나라셀라가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마트 가을 와인장터에서 특별한 와인을 선보인다. /나라셀라

‘마리타나 라 리비에르 샤도네이’는

캘리포니아 와인의 대부 ‘도널드 파츠’가 러시안 리버 밸리의 테루아에 매료된 이 지역의 교과서적인 와인을 만들었다는 도전과 철학이 담긴 와인이다.

‘비에티 바롤로 카스틸리오네’는 이태리 피에몬테에서 최초로 ‘싱글 빈야드’ 개념을 접목한 와이너리인 바롤로와 바르바르스코 크뤼의 선구자, ‘비에티’의 와인이다. 이 와인은 바롤로 지역의 작은 밭에서 수령이 10~45년 된 포도나무를 선별해 수확한 후 각 테루아의 특징을 담아내기 위해 별도의 양조 과정을 거치고 30개월간 오크통에서 숙성 후 병입 전 최종 블렌딩을 통해 완성된다.

가을 와인장터 기간 동안 전국 이마트에서 추천 와인뿐 아니라 나라셀라의 다양한 와인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푸드부터 패션·뷰티까지 ‘편의점의 진화’

‘세븐일레븐 뉴웨이브 오리진점’ 오픈

세븐일레븐이 고객 맞춤형 생활 플랫폼 형태의 ‘세븐일레븐 뉴웨이브 오리진점’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븐일레븐 뉴웨이브 오리진점을 통해 푸드부터 패션, 뷰티까지 고객 맞춤형 상품 구성과 현대적인 공간을 선보여 젊고 트렌디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가맹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세븐일레븐 측 설명이다. 매장은 코리아세븐 본사가 있는 서울 강동구 이스트센트럴타워 1층에 약 35평 규모로 자리 잡았다.

먼저, 세븐일레븐은 이번 신규 매장 카운터를 식품 코너 형태로 조성했다. 소비자는 즉석 피자, 군고구마, 커피, 치킨, 구슬 아이스크림 등 세븐일레븐의 대표 즉석식품을 한눈에 보고 구매할 수 있다.

신선식품 특화 구역도 새롭게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과일, 달걀 등 신선식품을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다양하게 갖춰 여러 고객층의 장보기 편의를 높였다. 와인코너에서는 MD 추천 와인 등 120여 종의 차별화된 주류와 5미터 길이의 넉넉한 시음 공간을 제공한다.

패션·뷰티 상품도 별도 공간으로 구성됐다. 패션·뷰티 전용 공간은 지난달 27일 선보인 패션·뷰티 특화 점포인 ‘동대문 던던점’의 축소형이라고 세븐일레븐은 설명했다.

특히 패션 코너에서는 인기 캐릭터 문과의 협업으로 세븐일레븐 단독 의류를 판매한다. 이 외에도 양말 전문 브랜드 삭스탑의 패션 양말 10여 종과 함께 마녀공장, 센카, 셀퓨전씨, 메디필 등 8개 뷰티 브랜드의 20여 가지 상품을 뷰티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세계百貨, 日 오사카에 ‘K패션 팝업’

국내 14개 브랜드... 연말까지 진행

신세계백화점의 K패션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인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옛 K패션82)’는 일본 오사카 한류백화점 한큐우메다본점에서 ‘K패션 팝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14개 국내 패션 브랜드와 함께하는 이번 팝업은 한큐우메다본점 3층에서 12월 31일까지 11주간 이어진다.

앞서 10월 16일부터 첫 주자로 나선

디자이너 가방 브랜드 ‘칼린’을 시작으로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 ‘레스트앤 레크레이션’, 디자이너 여성복 브랜드 ‘다이애그널’ 등을 차례로 선보인다.

한큐우메다본점은 일본 전역의 백화점 중 매출(거래액) 규모가 2위인 점포로, 현지 VIP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고객군이 찾는 오사카 최대 쇼핑 랜드마크다.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 업계 최초로 만든 K패션 수출 지원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인 ‘K

패션82’의 새 이름이다. 온라인 도매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 신생·중소 패션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고, 오프라인에서 계약·통관·물류 등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팝업 프로젝트는 해외 시장을 다각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엔 브랜드와 바이어, 즉 기업 간 연결에 역할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K패션 브랜드를 소개해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팝업을 통해 브랜드의 시장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어 향후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百貨, 100여개 장난감브랜드 최대 80% ↓

잠실점서 ‘아이큐박스’ 패밀리 세일

롯데백화점은 잠실점 8층 행사장에서 ‘아이큐박스’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주말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총 100여개의 장난감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이큐박스는 프리미엄 유럽 완구 브

랜드부터 국내 유명 완구 브랜드까지 다양한 장난감을 판매하는 토털 완구 편집숍이다.

이번 행사에선 아이큐박스가 공식 수입 및 유통하는 ‘플레이모빌’ ‘브리오’ ‘플레이포에버’ ‘테크노디다티카’ 등 해외 브랜드부터 ‘캐치티니핑’ ‘미미월드’ ‘옥스포드’ 등 국내 유명 장난감 브랜드까지 총 100여개 브랜드를 한번에 만나볼 수 있다.

/최빛나 기자

각양각색 패피 취향에... '개인 디자이너' 패션 부흥기 온다

〈패션 피플 : 옷을 잘 입는사람〉

마텔김 상반기 매출 700억, 65% ↑
라운 팝업 3일간 매출액 3억 이상

무신사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
연 4회 '판매지원 위주' 프로그램

신세계인터내셔널 '에스아이빌리지'
선우·자개 등 신진디자이너 팝업

'개인 브랜드' 전성시대다. 소비층의 수요가 대기업 브랜드 중심에서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중심으로 옮겨 가는 것. 이에 따라 기존 패션기업들도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를 찾는 소비층의 선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고객들의 개성과 취향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대형 브랜드보다 개인 중소 브랜드가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과거 패션 산업은 대기업 중심 구조였다. 삼성물산, 신세계인터내셔널, 한섬, LF(구 LG 패션) 등이 패션업을 이끌었다. 그러나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와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대기업 패션업들이 실적 불황을 맞이한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신세계인터내셔널 K-패션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육성 프로그램 관련 이미지.



따르면 실제 삼성물산의 2024년도 2분기 영업이익은 5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7% 감소했다. 한섬 역시 2분기 영업이익 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역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했다.

반면,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상황은 다르다. 브랜드 인큐베이터 기업 하고 하우스에 따르면 중소 디자이너 브랜드 마텔김은 2024년 상반기 매출 약 700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 따르면 마텔김은 이달 말 홍콩 코스웨이베이에 첫 매장을 오픈해 글로벌 진출에도 박차를 가

할 계획이다.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라운 역시 도드라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8월 현대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 라운은 3일 만에 3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하루에 약 1억원씩을 팔아치운 셈이다.

당시 라운 관계자는 "라운의 정체성을 앞으로도 유지 및 발전시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클래식 스타일의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부상하자, 업계는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새로운 경쟁력 제고 전략에 나섰다.



무신사는 지난 9월부터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업계의 흐름 속에 창의성이 뛰어난 중소 브랜드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게 무신사 측의 설명이다.

사계절 시즌에 맞춰 연 4회 운영되는 무신사 중소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 프로그램은 판매 지원 활동 위주로 구성됐다. 무신사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에게 고객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퍼포먼스 마케팅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무신사 테라스, 스퀘어 등 무신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공간을 제공하며 신상품 홍보 및 브랜딩을 위한 팝업스토어 오



/신세계인터내셔널

핀도 지원한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역시 K패션을 선도할 신진 디자이너 육성에 나선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자체 디지털 플랫폼 '에스아이빌리지'에서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온라인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상품 판로 확장을 도와 소규모 브랜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온라인 팝업스토어에는 선우, 자개, 쿄, 51퍼센트 등 4개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새롭게 입점한다. 온라인 팝업스토어에는 각 브랜드와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큐레이션 섹션이 마련됐다는 게 신세계인터내셔널 측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신세계인터내셔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내달 2일까지 신진 디자이너 육성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팅 F 2024' 기획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에스아이빌리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KGC인삼공사, 당뇨협회와 혈당관리 제품 공동개발

당뇨병 예방·관리 중요성 널리 알려
정관장 홍삼, 혈당조절 기능성 인정

KGC인삼공사가 한국당뇨협회와 당뇨병 예방·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혈당 관리 제품 공동개발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당뇨협회는 1995년부터 당뇨인의 일상 속 건강관리를 돕고자 당뇨교육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하고 당뇨병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블루런' 마라톤 대회를 오는 11월 10일 개최한다.

KGC인삼공사는 한국당뇨협회가 진행하는 캠페인을 후원함으로써 당뇨병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지난 18일 KT&G타워에서 김양진 KGC인삼공사 건식사업본부장과 김광원 한국당뇨협회 회장(오른쪽)이 MOU를 체결한 뒤 협약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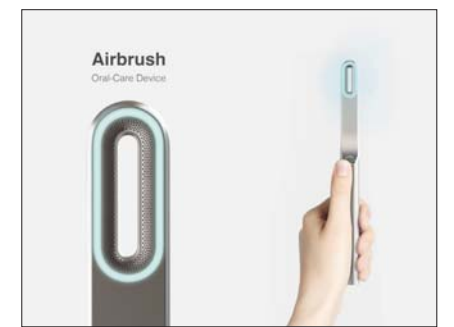
한편,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 런칭 및 한국당뇨협회내의 학전문위원단과 협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KGC인삼공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관장 홍삼(KGC05p g),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정관장의 R&D 기술력으로 수행된 전임상시험과 임

상시험에서 혈당 조절에 대한 홍삼의 효능, 기전 및 안전성을 확인된 것이다.

KGC인삼공사는 홍삼을 섭취하면 공복혈당뿐만 아니라 식후혈당 및 당화혈색소가 감소된다는 점을 밝혔으며, 특히 GLP-1(혈당 조절 및 식욕 억제 관련 호르몬) 증가 등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 및 당대사 조절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혈당을 조절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또한 혈당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건강 니즈를 반영하여 10월 중 혈당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 런칭과 동시에 혈당 관리 제품(GLPro 코어) 및 혈당·체지방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GLPro 더블컷) 등을 출시해 혈당 케어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생활건강

미래 디자인 '에어칫솔' 獨 레드닷 어워드 수상

LG생활건강은 지난 10일 독일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미래형 칫솔 디자인 '에어 칫솔(사진)'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은 전체 출품작 가운데 최고 디자인에만 수여되는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LG생활건강이 각 부문 본상이 아닌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힌 건 올해가 처음이다.

LG생활건강의 에어 칫솔은 '물이 필요하지 않은 편리함'이라는 주제에 맞춰 디자인됐다. 원래 칫솔모가 있어야 할 칫솔 머리 부분이 비어 있는데 여가서 강한 바람과 가글액이 입안 곳곳으로 분사되면서 간편하게 양치질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갖췄다.

LG생활건강은 에어 칫솔을 통해 '30년 후 LG생활건강이 우주정거장에서 판매할 생활용품'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어 칫솔은 초기 모델부터 다양한 전시회에서 '무중력 우주 공간에서 적합한 양치법', '물로 헹구지 않아도 오염이 줄고 획기적' 등의 호평을 받아왔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W컨셉 '겨울 신상품' 스타일링 제시

31일까지 '윈터 스포일러' 행사

패션 플랫폼 'W컨셉'이 겨울 신상품 미리보기를 주제로 한 '윈터 스포일러'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W컨셉에 따르면 윈터 스포일러는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신상품 미리보기 행사다. W컨셉은 미니멀, 로맨틱, 캐주얼 세 가지 키워드로 겨울 패션 트렌드를 소개하며, 추천 스타일링을 제시하는 패션 화보도 선보인다. 행사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올해 겨울에는 단정하고 절제된 스타일을 강조하는 드뮤어(Demure) 트렌드에 따라 세련된 디자인이 인기를 끌 전망이라는 게 W컨셉 측의 설명이다. 패딩과 코트 같은 아우터에 스웨이드백이나 레오파드 머플러를 조화시켜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티브리즈, 오어, 아우어노스텔리아 등 인기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 기자

세정그룹, 여성패션 독립 법인화 추진

올리비아로렌 중심 '전문성 강화'

국내 패션그룹 세정그룹이 여성 패션 부문의 독립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패션업계의 저성장 고착화와 내수 경기 침체로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자 부문별 핵심 역량에 집중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세정그룹에 따르면 전략의 첫 단계로 국내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을 중심으로 여성 패션 부문을 독립 법


인화한다. 여성복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여성 패션 특화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게 세정그룹 측의 설명이다.

신설 법인은 세정그룹이 100%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로 설립된다. 지난 20여 년간 세정에서 올리비아로렌 상품 기획에 직접 나선 박이라 세정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아 신설 법인을 이끌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2

2024 제약·바이오 포럼

2024. 10. 23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기조강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임운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삼육대-LG U+, 스마트 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삼육대학교는 지난 16일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내 무선 와이파이 인프라 개선과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용선 삼육대 부총장(왼쪽), 임장혁 LG유플러스 기업고객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BNK부산은행, '다대포선셋영화제' 현장 봉사

BNK부산은행은 지난 19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다대포선셋영화제를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BNK부산은행 지역봉사대원' 30여 명은 안전한 영화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자를 배치하고 참석하신 시민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BNK부산은행



롯데글로벌로지스, 아생조류 투명창 충돌 예방활동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아생조류 투명창 충돌 예방을 위한 점자형 스티커 부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일 롯데글로벌로지에 따르면 조류충돌방지협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활동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화익리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보호 및 인공구조물과 자연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정관장, '놀건 놀자! 건강 걷기 페스티벌' 성료

정관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진행된 '놀건 놀자! 건강 걷기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강공원 일대 건강 걷기 코스 6.8km를 걸었다. 안빈 KGC인삼공사 사장(가운데) 등 참가자들이 스타팅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정관장

인사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대구경북지사 주재기자 △대구 김준환 △영덕울진 손기섭

부음

▲이봉훈씨 별세, 이영준(현대HT 차장)·이대준(뉴데일리 산업2부장)씨 부친상, 전재숙씨 시부상 = 20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2일. 02-2227-7500
▲김귀남씨 별세, 고규석(전 광주일보 목포주재 부장)씨 모친상 = 19일, 목포 서해안장례식장 102호, 발인 22일. 061-245-4444

SKT, '행복 AI 코딩 챌린지' 대회 성료

장애청소년 AI 역량 강화... "꿈·희망 전하는 대회로"

AI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 육성
조민규, 장성혁, 임채호 등 장관상

SK텔레콤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행복 AI 코딩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복 AI 코딩 챌린지는 SK텔레콤이 1999년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를 시작으로 25년간 장애 청소년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개최하는 대회이다. 올해 대회는 장애 청소년들이 AI시대의 핵심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의적인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다양한 AI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학생 2인과 지도교사 1인이 한조를



'행복AI코딩챌린지'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SKT

이뤄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다른 팀과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목은 AI를 활용해 노래를 작사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복AI챌린지'와 '드림 챌린지', 코딩 로봇을 이용한 카드코딩과 미션게임인 '소셜 챌린지'와 '미션 챌린지', 문화유산 퀴즈를 맞히는 '문화유산 에이닷 장학 퀴즈' 등 모두 5개다.

최종 경진대회 결과, 종목별로 조민규·고준혁, 장성혁·박종권, 임채호·배연후 학생 등이 교육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특히 '행복 AI 챌린지'의 수상작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향후 음원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강세원 SK텔레콤 ESG 추진 담

당은 "장애 청소년의 AI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시작한 대회가 올해로 25년째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AI-드라이브 ESG 경영을 실천에 더해 장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유한재단, 송경애 교수 등 '유재라 봉사상' 시상

송미경, 고희경, 문영숙 선정

유한재단은 지난 18일 유한양행 본사에서 '제33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유재라봉사상은 사회봉사에 대한 신념으로 평생을 헌신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환 박사의 영에 유재라 여사의 숭고한 삶을 기념하고자 1992년부터 제정되어 매년 간호, 교육, 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인 봉사의 본을 보여 온 여성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 간호부문에서 가톨릭대학교



지난 18일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제33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에서 문영숙 양평호스피스희 대표, 고희경 모래시계한의원 원장,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 대전맹학교 송미경 교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송경애 명예교수(왼쪽부터)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재단

간호대학 송경애 명예교수, 교육부문에 대전맹학교 송미경 교사, 복지부문에 고희경 모래시계한의원 원장,

문영숙 양평호스피스희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엘리스그룹 'AI헬피 프로' 공개

인공지능(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은 멀티모달 AI 모델 'AI헬피 프로(Pro)'를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엘리스의 생성형 AI 챗봇 'AI헬피'에 이미지 인식 기능을 더한 것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특화됐다.

AI헬피 Pro에는 엘리스그룹 자체 개발 AI 모델이자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Hel py-V'가 탑재돼 이미지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경우 답변을 설명하는 시각적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AI헬피 Pro는 4000곳 이상 기관 AI 교육에 활용 중인 엘리스LXP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전자, 안전체험센터 '세이프티온' 오픈

가상공간 통해 안전사고 체험·대처

LG전자가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에 안전체험센터 '세이프티온(SAFETY ON)'을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창원 LG스마트파크에 약687㎡(약 208평) 규모로 구축한 안전체험센터 세이프티온은 사내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지역 중소기업 등

에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이다.

세이프티온이라는 이름은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잠재된 안전의식을 일깨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센터는 총 38개의 안전체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교육 참가자들은 가상공간이나 실제 사고 현장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산업 현장과 일상생



안전체험센터 세이프티온에서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VR로 체험하며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을 교육 받고 있는 모습. /LG전자

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하고 대처 방법을 배운다.

/구남영 기자

이스타항공 대학생 직무교육 실시

이스타항공이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은 한서대학교항공서비스학과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객실승무원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객실훈련팀은 16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한서대학교를 방문해 이스타항공을 소개하고 객실 승무원의 업무 절차 및 역할을 설명했다.

한서대학교 학생들은 이스타항공 객실 훈련 교관들의 지도 아래 실제 이륙 전 기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브리핑 등을 체험했다. 또한 예비 승무원으로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했다.

이스타항공 김재원 객실훈련 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예비 승무원들의 꿈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에코프로, 임직원 2500명에 RSU 지급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창립기념일 맞아 12만 7456주 지급

창립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임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이번에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지급한다.

에코프로는 창립 26주년을 맞아

RSU를 임직원 증권계좌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사주를 지급받는 임직원은 총 2500여명이며 주식수는 12만7456주다. 이 가운데 수석 이하 일반 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은 약 11만8000주로 전체 93%를 차지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망에 의한 대여금 채권도 상계 항변 가능



김지혁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상계(相計)란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를 각 대응액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의 승낙 필요 없이 채무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493조 제2항). 이처럼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에서는 상계가 가능한 요건과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92조, 제496조 내지 498조).

민법 제496조에서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돼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

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광계로 상대방에게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뒤, 위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자신이 받을 돈과 상계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한편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구성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행위에 기초해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해 경합하는 경우나,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부당이익 원인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원인에 기초해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해 경합하는 경우 등 상계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

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등 참조).

다만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금전을 대여한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계약상 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쌍방 사이의 계약에 기초해 발생하는 권리다. 그 급부의 이행으로 지향하는 경제적 이익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해 양자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민법 제496조가 정한 상계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

초1 난독 전수조사, 한글 선행 부추긴다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난독 검사를 받는다. 정근식 제23대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기본 계획'을 1호로 결재하면서다.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 교육감이 '1호 결재'로 그 의지를 표명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취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난독증이나 난산증, 경계성 기능장애 등이 곧 학습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시교육청은 검사를 통해 난독, 경계성 기능장애 등이 의심되는 학생은 심층 진단해 맞춤 지원한다는 게

획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계획된 '난독' 전수 조사가 첫째 초1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난독이란 지능지수는 정상 범주에 속하고 듣고 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지만, 문자를 판독하는 데 이상이 있는 증세를 말한다. 보통 글자나 단어를 뒤집어 읽거나, 새로운 단어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글을 빠르게 읽지 못하는 증세도 그중 하나다.

동갑이라도 1월생과 12월생이 성장의 격차를 보이는 나이는 대략 7~8세까지다. 이 때문에 같은 1학년이라도 1월생보다 12월생이 더딘 경우가 왕왕 있다. 내년 초1 대상 난독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부담감은 '한글 선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가 시행 중인 '한글 책임교육' 정책

과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초1·2의 한글교육 시간을 종전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대폭 늘리는 '한글 책임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한다'는 전제로 초1을 교육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의 '한글 책임교육'을 믿고 한글이 무지한 상태로 초1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따라 당해 '난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한글을 미리 배우고 입학한다는 전제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취학 전 한글 선행학습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부모 65%가 '공교육 전반에서의 책임교육 실현'을 꼽았다. '한글 해독 진단'으로도 충분한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난독' 진단을 시행해 학부모로 하여금 '한글 선행'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1일 (음 9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의도는 왜곡되기 쉽다. **4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 **60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72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어불성설. **84년생** 오후에 인연을 만나 즐겁다.
- 37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49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61년생**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은 바른길 마다. **73년생** 음주는 지각하고 몸이 괴로울 터이니 자제를. **85년생** 깨끗하고 상쾌하게 옷차림을 바꾸어라.
- 38년생** 투자에는 반드시 기승전결(起承轉結)이 있어야. **50년생** 물 건너서 기본 소식이 들려오니 될 듯이 기쁘다. **62년생**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자신의 문제이다. **74년생** 이 세상에 결코 우연한 행운은 없다. **86년생**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
- 3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니다. **51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현실. **63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75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87년생** 가족을 필요 없는 하루.
- 40년생** 자식으로 인해 곤란한 일을 겪는다. **52년생** 진실을 알아도 침묵해야 편하다. **64년생** 젊이 젊으면 중이 떠난다면 그만이니 약담 마라. **76년생** 사사치절 맑은 날만 되풀이되면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 **88년생** 나에게 아직 기회가 많이 있다.
- 41년생** 죽을 만큼 힘들어도 솟아날 방법은 있다. **53년생** 지혜가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일을 해나기만 된다. **65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77년생** 허릿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다 낭패. **89년생** 창업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자.
- 42년생** 외출 시에 자동차를 조심해야 한다. **54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66년생** 처음도 중요하나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78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니 협조하자. **90년생** 잠시 피해야 할 일 발생한다.
- 43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들 건 그리움이다. **55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67년생** 현상 유지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니 조심히. **79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91년생**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 44년생** 오후에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56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온다. **68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두문불출이 좋을 듯. **80년생** 망설이지 말고 주어진 일에 도전해 보자. **92년생** 가끔씩 상대를 이해하기 바란다.
- 45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57년생**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물을 준비하고 바다로 나가라. **6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것. **81년생** 내일은 내일 오늘 사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대비. **93년생** 우울 안 깊이는 알 수 없다.
- 46년생** 웃지 않고 보면 날은 의미 없는 날. **58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의 기본. **7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82년생** 바람직한 만남이 아니라면 감정의 달콤함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94년생** 직장 출근을 시작.
- 47년생**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59년생**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기 전에 겨울준비가 필요. **71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83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다. **95년생** 지인으로부터 투자는 배신당할 수.



김상회의四季 절기처럼 나이 들기

정신을 못차리던 여름이 지나고 찬 서리가 내린다는 한로(寒露)를 지냈다. 풍성한 추석이 지나면 올 한해도 막바지를 향해 간다는 생각에 벌써 또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야마 사람들이 가을을 많이 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도 한몫하는 것이 아닐까. 고풍화 추세에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집 저 집 부모님들이 구십을 넘겨 장수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인지는 의문이다. 반드시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저 하루하루 TV를 끼고 살며 심심하지 않게 지내려 애를 쓰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는 걸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수를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가 고풍화 사회가 심화하면서부터 국가의 부담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쩌면 공자가 그리도 장유유서를 삼강오륜의 하나로 집어넣은 이유는 늙음을 약점으로 보았기 때문 아닐까?

그런데도 노인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지혜' 때문이다. 또 다른 의미는 곧 절기의 순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때를 잘 알며 순응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는다는 순리를 안다는 것이며 순리를 안다면 지혜는 당연히 함께한다. 추분이 지나면 밤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천둥소리도 없어지고 벌레들도 월동할 곳으로 숨는다. 동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24절기처럼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듯 저녁 8시가 넘으면 슬슬 하루를 마감하는 준비를 한다. 그렇듯 인생 노년은 살아온 날을 반조하며 어느 날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 하더라도 여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이것이 절기처럼 나이 먹는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8	9	1	6	
9	7		6	2	5
		5			9
	9	6	7	8	
5			3		
	8	6	3		9
	8	6	3		9
1	2	9	5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 과일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9	6	2	7	1	8
2	7	8	9	1	9	6	2
2	1	6	9	7	8	9	8
7	2	1	6	8	2	9	9
9	8	2	7	9	6	7	1
6	2	9	7	1	9	8	2
1	9	2	9	8	7	2	6
8	6	7	2	8	2	1	9
8	9	2	1	9	6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3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3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한강변·구릉지 등 유형별 도시경관 관리방안 고도화

개발-보존 공존 관리방안 모색 연내 심의 운영위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초 사전협의제 확대 운영 예정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경관 심의 운영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사전협의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 공간의 여건 변화로 경관 자원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은 급격한 사회·경제·환경적 변화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응해 경관 자원(한강·남산·역사자원)의 활용 가치가 증대, 경관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경관 심의 내실화 계획’(2019년)의 ‘사전협의제’를 통해 서울 전역의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도시관리과의 사전협의 현황에 의하면, 안건 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2년 234건, 2023년 28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경관 심의 건수는 225건, 198건, 132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일관된 도시 경관 관리

방향 부재 ▲경관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경관 관리 기준 미비 ▲위원회별 경관 심의 통합 운영에 따른 경관 심의 실효성 한계를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시는 체계적 도시 경관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 도시 경관의 일관성을 확보해 서울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2040 경관계획’의 도시계획 측면을 보완할 예정이다. 도시·경관 관련 주요 기본계획(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울 도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경관 유형별(산·구릉지+수변+역사문화+시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 조망점 분석을 통한 조망점 추가 및 삭제 검토해 조망점의 기본 원칙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경관 관리·실행 계획을 신규 수립한다. 서울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자 지역별·경관 관리 요소별 세부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자치구·생활권 등 지역 단위의 경관 자원 조사·분석 및 경관 가치 재조명 ▲지역별 지속적인 경관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경관 현황도 제작(보전지역, 형성지역, 관리지역 등) ▲지구·구역별(경관지구·고도지구·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가이드라인 ▲경관구조별(경관축, 경관 자원거점 등) 지침 ▲조명경관 유형별(수

평조망·부감조망·파노라마조망 등)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시는 경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 유형별 심의 절차, 관련법·기준 등 경관 심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경관 관리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기존 4개 위원회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추가해 총 6개의 위원회를 가동한다.

정책 일관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경관계획과 경관 관리 기능을 도시공간본부(도시관리과)로 업무 이관 조치해 경관 심의·개발 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강력 차단” 올해 수시지원자 44% ‘논술 전형’ 택했다

민통선 주민 대상 이동시장실 운영

파주시는 지난 18일 장단면 일대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동시장실을 열어, 최근 남북 접경지대에서 고조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주민 피해 실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임진각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 행사에는 조산리 대성동 마을, 백연리 통일촌, 동파리 해마루촌 등 민통선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불면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알리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한



파주시는 지난 18일 장단면 일대에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주민 피해 실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파주시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출입금지 명령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학생부·정시 대안으로 부상 상위권 대학 9곳 과반 이상 지원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지원자 중 44%가 ‘논술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비중이 높은 학생부전형이나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에서 합격에 기대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논술전형을 대안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시행한 42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 지원자는 51만 9365명으로, 수시 전체 지원자(117만 7898명)의 44.1%를 차지했다. 2025학년도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전국 42개 대학으로, 지역별 캠퍼스를 별도로 분리하면 50곳이다.

수시의 전형별 지원자 비율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는 30.6%, 학생부교과 전형 지원자는 15.6%에 그치며, 논술전형 지원자 수가 가장 높게 형성됐다.

논술전형을 시행하는 50곳의 수시모집 정원 중 논술전형의 비중은 20%로 1만 2210명에 불과하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은 39.9% ▲학생부교과전형은 30.7% 순이다. 논술전형의 비중이 가장 낮은 데도 가장 많은 수험생이 쏠린 셈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 9곳은 수시 지원자 과반수가 논술전형에 지원했다. 9개 대학의 수시 지원 인원은 38만 6401명으로, 이중 55.7%에 해당하는 21만 5385명이 논술전형으로 지원했다. 특히 ▲한국외대 69%(논술지원자 1만 5773명)

▲경희대 62.4%(2만 4049명) ▲중앙대 59.0%(3만 6119명) ▲서강대 58.9%(1만 5689명) ▲성균관대 58.0%(4만 1617명) 등의 논술 전형 지원 비중이 높았다. 이어 ▲이화여대 52.8%(1만 3450명) ▲연세대 52.5%(1만 7758명) ▲한양대 50.9%(2만 7509명) ▲고려대 45.0%(2만 3421명) 등의 논술전형 지원 비중도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과전형은 학교 내신이 불리할 경우 처음부터 원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며 학종 또한 내신 교과성적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은 학교 내신이 불리할 경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유일한 통로가 논술전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6 | 해질 / 17:47

10월 21일 (월)
음력 : 9월 19일

수도권 날씨 **10~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6/19, 동두천 7/19, 가평 5/18, 양평 8/18, 용인 11/19, 평택 10/20, 수원 11/19, 인천 11/20, 파주 7/18, 서울 10/20, 백령도 14/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4.5만건 돌파

서비스 만족도 90% 웃돌아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1월 첫선을 보인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가 4만 5000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이들이 병원을 오갈 때 매니저가 함께 하며 진료를 돕는 서비스다. 병원 이동은 물론 진료 접수, 수납, 약국까지 동행한다. 1인가구뿐만 아니라 노인 가구, 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원의 도

움을 받기 힘든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시는 서비스 시행 3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가 4만 5000건을 넘어섰으며, 총 이용 시간은 15만 시간, 서비스 만족도는 90%를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시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자의 62%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장년(21%), 청년(2%) 순이었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 모습. /서울시

서비스 만족도는 92.9%였다. 특히 ‘병원 이용에 실질적 도움(95.7%)’, ‘서비스 제공 시점 적절(94.6%)’, ‘매니저 친절(94.7%)’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김현정 기자

뉴스타파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서러시아에 대규모 드론 공격
▲ 北쓰레기 풍선 20개 부양 철원에만 10여개 낙하 /사진 뉴시스



▲ 미 조지아주 사펠로섬 여객선착장 붕괴로 7명 사망
▲ 英 외무 “분쟁 상호 연관에 한국과 안보 협력 강화 계획” /사진 뉴시스

▲ 허리케인 오스카, 바하마 근해에서 형성
▲ 최상목, G20 APEC 재무장관회의의 참석



“하늘에서 K-푸드”
식품업계
기내식 개발 속도
나



Life

각양각색 취향에
개인 디자이너
패션 부흥기 온다
L2



새벽 깨우는 당찬 청년농부... “생명산업 농업, 가치 알아주길”



새벽을 여는 사람들

청년농부
박 상 욱 씨

농부 박상욱(33)씨는 1991년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에서 태어났다. 현재 대호지면에 남은 몇 없는 청년이다. 당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러나 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진로에 확신이 들어 당진에 남았다. 3만여평의 땅에서 쌀과 고구마를 재배한다. 대학과 재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서 1년간 농공(농업과 공업)을 공부했다. 미국과 일본의 농공 기술은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만큼 역량을 키우기에 적합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기후 등 조건이 비슷한 만큼 실용성 있는 기술을 배우기 좋았다.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 박 씨는 당진시에서 선발하는 ‘당찬 당진사람’ 5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다.

◆ 농업은 ‘생명산업’...가치 느끼고 뿌듯해
과거 박 씨는 내심 농업에 관한 자격지심이 있었다. 근로 환경의 특성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이다. 농업은 땀나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박 씨를 위축시켰다.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직장인이 되거나 농업 관련 공무원이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서 농업에 관한 자격지심을 말끔하게 털어낼 수 있었다. 요리사로 일했는데 직장 동료들과 부모님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면 모두 부러워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농업을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느꼈다. 동료들은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을뿐더러 박 씨가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 농업을 평가절하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간혹 뉴스를 보면 속상할 때가 있다.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이 시위하는 기사에 비난성 댓글이 넘칠 때다. 농민에게 투입하는 정부 지원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그는 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 씨는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였지만 전쟁 이후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 이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수입하고 있다. 필리핀 또한 세계 최대 규모 곡창지대에서 쌀 수입국으로 변했다. ‘식량안보’라는 말이 존재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농업의 가치를 알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 첨단 기술 적용한 농업, ‘기계화’ 주목

박 씨는 올해로 7년차 농부다. 그의 일터는 논(3만평)이다. 축구장 14개를 합쳐 놓은 크기다. 그러나 수확을 제외하면 어머니와 둘이 모든 작업을 마친다. 비법은 ‘기계화’다. 농사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계화에 주목했다. 모종 준비를 위해 밭을 갈고 일구는 것은 자율주행 트랙터가 담당한다. 벼가 자라면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살포한다.

쌀과 고구마 농사를 짓는 만큼 연중 3~5월이 가장 바쁘다. 새벽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해야 한다. 파종과 이앙 작업에 몰두한다. 여름에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당진시 청년농업인들이 모여 ‘해나루방제단’을 결성했다. 별도의 임금을 받고 여름 농사를 짓는 분들을 찾아 농약 살포를 대행한다. 사람이 직접 하지 않으니, 돈을 지불하더라도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득이다. 바쁠 때는 하루 매출 200만원, 월 매출 2000만원 정도다.

그는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농업 분야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조언했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최소 3년간 생



박상욱씨가 지난 16일 오전에 도정한 ‘당진쌀’ 820kg을 트럭에 싣고 포즈를 취했다. /김정산 기자

농업경제학 전공, 고향서 청년농부로
당진 3만여평 땅에 쌀·고구마 재배

캐나다 워홀 지내며 농업 인식 바뀌어
농업, 불확실한 미래 대비하는 수단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첨단기술 적용
청년농부 지원으로 팔팔 마련 가능해
성실함 기본... 시행착오, 보완 거듭해야

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농(만 39세 이하)일수록 유리하다.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50~60%, 5년 이내 폐업률이 70~80%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매력적인 선택지다.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도 연 1%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3년간 실패와 착오를 겪고 성실하게 보완해야 한다. 핵심은 생육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파종과 농약 살포, 비료 투입 등 작물이 요구하는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보급해야 한다. 기록은 필수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변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생활 보조금을 받고 나태해진다면 절대 독립할 수 없다.

박 씨는 “지금은 여유가 생겨 요령껏 일할 수 있지만 처음 1~2년간은 딱 감고 일만 했다. 농사짓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고 농업을 전공했지만 직접해보니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결국 정착을 위한 성공 비결은 성실성이다”라고 강조했다.

◆ ‘귀농 성공’은 농업교육 수강부터

박 씨는 귀농 성공비법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가장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한 강의를 듣는 것을 권장

한다. 박 씨 또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론 교육을 들었고 실무에 적용했다.

작물은 일하는 방식과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크게 실내재배와 노지재배로 구분한다. 최근 실내재배의 트렌드는 유리온실이다. 컴퓨터가 온도조절과 온실 개방, 환풍기 작동 등을 담당한다. 유리온실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농작물은 ‘딸기’다.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로 잘 알려져 있다.

단, 농사를 포기했을 때 손해가 크다. 특히 시설의 경우 감가상각이 심한 편에 속한다. 대출을 받아 수익원을 들여 설비를 마련해도 되팔 때는 몇천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노지재배보다 시간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요구한다. 흔히 딸기 농사는 ‘1년에 14개월 일한다’고 표현한다.

노지재배는 포기했을 때 위험 부담이 적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진다. 고구마와 쌀의 평당 매출액은 각각 1만5000원, 4000원 수준이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농지은행’ 등의 도움을 받아 최소 1만평 이상의 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그는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강조했다. 박 씨의 경우 유통 플랫폼에 입점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였다. 최근에는 부대시설을 정비하면서 농촌 체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박 씨는 “처음 귀농하는 분들이 ‘좋은 농산물’에 얽매는 경우를 봤다. 하지만 결국 맛있는 농산물이 생존한다. 여러 품종을 심어보고 직접 맛보기를 권장드린다”며 “지역소멸이 가속하는 만큼 많은 분이 농촌에서 오시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박상욱씨가 농약 살포에 사용하는 드론을 소개하고 있다.



박상욱씨의 다음 과제는 축산업이다. 아직은 한우 4마리만 키우고 있다.



▲정몽규 회장, 현안질의 이어 국정감사 /사진 뉴시스
▲KIA-삼성, 왕좌 놓고 격돌 21년만에 KS서 맞대결

▲메시 또 해트트릭...마이애미, 리그 최종전서 6-2 대승
▲PSG 이강인, 교체 투입후 4호골 폭발 리그 8경기 무패



▲배드민턴 안세영, 덴마크 오픈 결승행 /사진 뉴시스
▲‘김민재 폴타임’ 뮌헨, 슈투트가르트 4-0 꺾고 선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스마트한 자산관리까지

시니어의 모든 행복이 쭉~이어지도록

#2 안정된 노후 준비 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심한 간병보험부터

삶의 여유를 더해주는
든든한 연금보험에

복잡한 노후 자산관리를
끝내는 원스탑 은퇴 설계까지

편안한 내일, 시작부터 끝까지
KB가 준비하겠습니다

시니어의 인생을 더 든든하게
Korea Best
KB금융그룹

든든한 보장부터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KB 100세 만족 연금보험]

[KB골드라이프X]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약에 따라 갹신주기 및 최대 갹신나이 가 다를 수 있으며, 갹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2261호(2024.10.10~2025.10.10) [KB 100세 만족 연금보험]** · 이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적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이사(부활(회력 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회력 회복)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라이프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KB라이프타워 www.kblife.co.kr 고객센터 1588-3374 · 별도 계약이 없는 한 계열사 상호간 채무보증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 SM-2410011(2024.10.11~2025.10.10) [KB골드라이프X]**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약관 및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KB골드라이프X 담당자(1522-4548)로 문의하시거나, KB골드라이프X 홈페이지(www.kbgoldlifex.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4897-1호(2024.10.08), 유효기간 2024.10.08.~2025.09.30까지**

KB 국민은행 | KB 손해보험 | KB라이프

KB증권 | KB국민카드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 KB 금융그룹**